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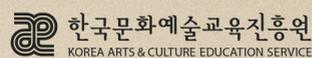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사회 위기 속 참여적 예술교육의 역할

2021.5.24^{MON} - 30^{SUN}

www.arteweek.kr



KOR

Contents

전체 일정표	5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7

DAY 1

1일차 일정표	8
개막식	9
환영사 & 해외축사	11
기조발제	12
개막 영상	13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15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DAY 2

2일차 일정표	17
기조발제 1	19
세션 1	22
세션 2	29
세션 3	35
세션 4	41
BYOB	46

DAY 3

3일차 일정표	47
기조발제 2	49
세션 5	52
세션 6	58
세션 7	64
세션 8	71
폐회세션	78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83
조직위원회 소개	87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및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www.arteweek.kr

www.arteweek.kr/unitwin2021

DAY 1 - 05.24 (MON)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및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시간			프로그램	연사
GMT-4 (NYEDT)	GMT	GMT+9 (Seoul(KST))		
00:00-00:15	04:00-04:15	13:00-13:15	오프닝 공연	<원형하는 몸 : round1> 차진엽 (collective A 예술감독, 대한민국)
00:15-00:25	04:15-04:25	13:15-13:25	환영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민국)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00:25-00:27	04:25-04:27	13:25-13:27	해외축사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 칠레) 래리 오맬 (유니트윈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윈스 대학교 명예교수, 캐나다)
00:27-00:30	04:27-04:30	13:27-13:30	기조발제 1	1 "문화와 기후변화" 벤 트위스트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킵클렌드 대표, 스코틀랜드)
00:30-00:47	04:30-04:47	13:30-13:47	기조발제 2	2 "창조적 교육학의 진찰함, 보살핌 그리고 치유성" 피터 셸러스 (연출가 / UCLA 교수, 미국)
01:13-01:25	05:13-05:25	14:13-14:25	기조발제 3	3 "자신의 예술에 책임지는 일" 요조 (백작스트로베리아사운드 싱어송라이터 / 작가, 대한민국)
01:25-01:30	05:25-05:30	14:25-14:30	개막 영상	<오두의 목소리 -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예술을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윤주아 (구로문화재단 '몸의 오케스트라' 구로', 대한민국) 김인규 (작가, 대한민국) 박재현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이원철, 문향영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노인영상미디어에 참여자, 대한민국) 김나예 (예술교육 생명나무 예술가 교사, 대한민국) 김복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연극반 참여자, 대한민국)
01:30-02:40	05:30-06:40	14:30-15:40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지금, 기후위기-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바라본 기후위기> 모더레이터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성지수 (올렉티브 향교 대표, 대한민국) 오상진 (모디아트협동조합 대표, 대한민국) 강진숙 (광명 일사이클아트센터장, 대한민국) 박진희 (상상창고 스투 대표, 대한민국)

* 사회자: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부부장, 대한민국)

05.28 (FRI) - 06.05 (SAT)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항목	주제	개최 일시	송출방법
한국예술교육학회	퍼포먼스로서의 비대면 예술교육	5. 28.(금) 13:30 - 16:30	녹화 후 업로드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 29.(토) 9:30-13:00	녹화 후 업로드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참여와 소통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5. 29.(토) 9:30-13:15	녹화 후 업로드 (유튜브, 줌)
한국조형교육학회	연결하는 미술교육: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비대면 미술수업 사례	5. 29.(토) 9:30-17:00	실시간 송출 (유튜브) 녹화 후 업로드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	5. 29.(토) 10:00-18:00	실시간 송출 (시스코, 웨백스)
(사)한국사진교육학회, 현대사진영상학회	변혁과 위기의 시대를 영영하는 문화예술교육	5. 29.(토) 13:00-15:00	실시간 송출 (유튜브) 녹화 후 업로드
한국음악교육학회	위기의 시대, 기회의 음악교육공학	5. 29.(토) 14:00-17:30	실시간 송출 (유튜브)
대중음악콘텐츠학회	비대면 음악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	6. 2.(수) 14:00-17:00	실시간 송출 (유튜브, 줌)
한국무용학회	변혁의 시대, 무용인의 길을 묻다.	6. 5.(토) 10:00-13:30	실시간 송출 (줌)

DAY 2 - 05.25 (TUE)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시간			프로그램	주제	발제자
GMT-4 (NYEDT)	GMT	GMT+9 (Seoul(KST))			
00:00-00:40	04:00-04:40	13:00-13:40	기조발제 1	예술교육 2.0에서의 다양성	에르트스트 바그너 (유니트윈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광명 미술관 선임연구원, 독일) 모더레이터 치후 렘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00:40-02:25	04:40-06:25	13:40-15:25	세션 1 : 현장사례연구 1	모더레이터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대한민국) 극장은 '작은 지구'입니다 팬데믹 시기, 예술의 변화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처: 성북 '예술순환루' 프로젝트 사례 중심 수상한 식탁 창의적인 온라인 워크숍 만들기	정용성 (국립국악원 팀장, 대한민국) 이은수 (국립현대미술관 주무관, 대한민국) 김소원 (성북문화재단 학예연구사, 대한민국) 김수연 (경성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이보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02:25-03:55	06:25-07:55	15:25-16:55	세션 2 : 예술 치유	모더레이터 글로리아 자파타 (후안 코르카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제이, 콜롬비아) 예술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들의 심리 지원: 증거 자료와 예술교육실천가를 위한 가이드 급변하는 세계 속 사회적 안정의 원천으로서 연극 교육과 예술교육의 중요성 6학년 창의 예술 수업 내 생활 기술 개발을 위한 퍼포먼스 교육학 팬데믹 시대 미술치료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티나 쿠코넨 (핀란드 대학교 박사과정생, 캐나다) 사나 크르노노비츠 타시치 (국제연극교육협회(IDEA) 이사장, 세르비아) 앤디 베트만 (남아프리카 대학교 조교수,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재연 ((사)한국영상미술치료협회 회장, 대한민국)
03:55-05:10	07:55-09:10	16:55-18:10	세션 3 : 사회적으로문화적 포용	모더레이터 넬리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팬데믹과 관계없이 비대면 예술교육이 필요한 세계 아이들에게 대한 고찰 다들 세상에서 성장하기: 싱가포르의 삶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 이야기 무용과 언어 교육의 결합: 위기의 시대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창의적 대응 주요력 및/또는 과잉 활동 장애가 있는 4-8학년 학생을 위한 정서적 자기 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예술 활용 다중사례연구	김태희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살린 라렌드란 (난양 공과대학교 조교수, 싱가포르) 난 장 (모네시 대학교 박사과정생, 중국) 아라 도크레트 (윈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05:10-06:10	09:10-10:10	18:10-19:10	세션 4 : 서울 어젠다	모더레이터 김민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예술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 가치, 도전, 가능성 환경 예술가와의 대화, 전 테: 과정과 교육학적 가능성 탐구 시각예술교육: 지연의 연속과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세계를 이어주고, 풀어주고, 지속하며, 키워주는 글로벌 맥락 온라인 만남의 광장	벤지민 볼든 (윈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넬리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치후 렘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젠 테 (환경예술가 및 교육자, 싱가포르) 캐서린 플린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마크 셸크리그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애비 맥도널드 (테즈메니아 대학교 부교수, 호주)

DAY 3 - 05.26 (WED)

시간			프로그램	주제	발제자
GMT-4 (NYEDT)	GMT	GMT+9 (Seoul(KST))			
00:00-00:40	04:00-04:40	13:00-13:40	기조발제 2	예술교육의 과제로서의 "문화적 회복력"과 "디지털 회복력" : 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론을 위한 회복 개념에 대한 범분야와 한계 모더레이터 타나 클레페키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제이 의장, 독일)	베나민 외리센 (유니트윈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제이 의장, 독일)
00:40-02:10	04:40-06:25	13:40-15:10	세션 5 : 교실 속의 예술	모더레이터 벤지민 볼든 (윈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코로나19 대응기간 동안 캐나다 대학 학생들의 발전, 완화, 성찰, 그리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미술 치료 사용 포용적 실천을 위한 인형극의 마음 같은 힘 음악 교실에서 다양성과 문화적 대의의 필요성: 실용적인 전략과 그 실행 2020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디지털 예술로 협업하기	메리 클레어 키텐다 (캐나다 공과대학교 학과장, 캐나다) 에밀리 맥밀런 (윈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홍지혜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 미국) 에밀리 월슨 (멜버른 대학교 조교수, 호주) 넬리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02:10-03:40	06:25-07:55	15:10-16:40	세션 6 : 예술 참여	모더레이터 신혜선 (위협적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서비스러닝의 내러티브: 난양 예술 아카데미 사례 연구 온라인 관람 시대에 참여와 공유를 실천하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팬데믹 이후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예술교육가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가 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와 2020년 위기 속 예술교육의 혁신	레베카 칸 (난양 예술 아카데미 부총장, 싱가포르) 푸 세이 밍 (난양 예술 아카데미 학장, 싱가포르) 탄 쟝 수안 (난양 예술 아카데미 조교, 싱가포르) 정혜연 (종익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성효진 (종익대학교 석사과정생 / 국제 갤러리 전시팀, 대한민국)
03:40-05:25	07:55-09:10	16:40-18:25	세션 7 : 다양성&문화적 대의	모더레이터 치후 렘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위기 속의 예술: 불평등 사례 LGBTQ+의 역사를 옹호하는 박물관들 남한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의 공존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미술 프로젝트의 현상학적 연구 중용한 무대: 캐나다 엘 시스템(El Sistema)가 코로나에 응답하다	제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대한민국) 제프 플린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전무이사, 미국) 루스 렌츠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교수, 호주) 심지영 (종익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김유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대한민국) 박소정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손 코르코란 (윈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캐나다) 벤지민 볼든 (윈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05:25-06:25	09:10-10:10	18:25-19:25	세션 8 : 현장사례연구 2	모더레이터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부부장, 대한민국)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책누나프로젝트의 기후위기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뉴 노멀 청소년에게 그림책으로 질문 던지기 아이 코브 유 위기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교육 장르 소개 과도기를 이어준다: 예술교육이 성인으로 가기 전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는가	장수혜 (책누나프로젝트 대표, 대한민국) 공윤지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사, 대한민국) 이현정 (지아정원 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대한민국) 배성중 (예술 강사, 대한민국) 최영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교육팀 팀장, 대한민국)
05:25-06:25	09:10-10:10	18:25-19:25	폐회세션	모더레이터 장중호 (종익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토론자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김민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쉬프락 손만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이스라엘) 에밀리 아치영 야쿠노 (캐나다 공과대학교 교수, 캐나다)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부부장, 대한민국) 신혜선 (위협적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보와 령 (종종 교육 대학교 교수, 홍콩) 펠트 벅 (오슬랜드 대학교 학과장, 뉴질랜드)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사회 위기 속 참여적 예술교육의 역할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2011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 어젠다: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를 주도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 어젠다’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개최되었던 5월 넷째 주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 10주년,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발의 11주년을 맞아, 한국을 넘어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사례와 행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예술교육의 가능성과 가치 발견을 통해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는 특별히 사전행사를 포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 국의 다양한 학자, 예술교육가, 현장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를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언택트 #포스트코로나 #온라인콘텐츠 #정책 #공론화 #미래 #방향성 #대전환 #국제학술대회 #행동하는 #문화예술교육

5/24(월)
13:00~15:40

DAY 1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개막식 및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 사회자: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00-13:15	오프닝 공연	<원형하는 몸 : round1> 차진엽 (collective A 예술감독, 대한민국)
13:15-13:25	환영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민국)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13:25-13:27	해외축사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 칠레)
13:27-13:30		래리 오패럴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퀸스 대학교 명예교수, 캐나다)
13:30-13:47	기조발제	1 “문화와 기후변화” 벤 트위스트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 대표, 스코틀랜드)
13:47-14:13		2 “창조적 교육학의 친절함, 보살핌 그리고 치유성” 피터 셸러스 (연출가 / UCLA 교수, 미국)
14:13-14:25		3 “자신의 예술에 책임지는 일” 요조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싱어송라이터 / 작가, 대한민국)
14:25-14:30	개막 영상	<모두의 목소리 -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예술을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윤주아 (구로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 대한민국) 김인규 (작가, 대한민국) 박재현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이원철, 문항영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노인영상미디어 참여자, 대한민국) 김나예 (예술교육 생명나무 예술가 교사, 대한민국) 김복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연극반 참여자, 대한민국)
14:30-15:40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사전행사	<지금, 기후위기-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바라본 기후위기> 모더레이터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성지수 (컬렉티브 뮅글 대표, 대한민국)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대한민국) 강진숙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장, 대한민국) 박진희 (상상창고 숲 대표, 대한민국)

개막식

사회 위기 속 참여적 예술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문화예술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소설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당면해있는 평등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 과정을 소통·희망·도전이 담긴
모두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술이 우리의 일상에 힘차게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개막식 & 오프닝 공연

사회자



홍유진 (Yujin Hong)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KACES)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및 조사분석, 정책 및 기관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문화사회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육기반본부장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연수,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며,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단TF 팀장을 겸하고 있다.

오프닝
공연



<원형하는 몸 : round1>

차진엽 (Jinyeob Cha)

collective A 예술감독, 대한민국

2012년 창단한 크리에이티브 아트그룹 'collective A'는 기존 공연예술이 가진 형식의 개념을 벗어나 예술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모색하며 확장해 나가고 있다. 공간과 장르, 형식과 매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 작업을 통해 경계 없는 예술을 지향하며 예술이 가진 입체적인 가치를 탐구 중이다. 예술감독인 차진엽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안무감독을 역임하였다.

환영사 & 해외축사

환영사



황희 (Hee Hwang)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민국

코로나19가 일으킨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할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 대한 기대와 국내외 참여자를 위한 환영사를 전한다.



박신의 (Shin-Eui Park)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 상황 속에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과 실천을 멈출 수 없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담론 제시의 목소리를 전한다.

해외축사



에르네스토 오토네 (Ernesto Ottone R.)

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 칠레



래리 오페럴 (Larry O' Farrell)

유니트원-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퀸스 대학교 명예교수, 캐나다

<2010 유네스코 세계예술교육대회>의 국제 자문위원회 위원이자 총 보고관으로서 '서울 어젠다'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래리 오페럴이 전하는 축하의 메시지를 들어본다.

기조발제



문화와 기후변화

벤 트위스트 (Ben Twist)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 대표, 스코틀랜드

지속 가능한 미래로 향하기 위한 예술과 문화의 필수적 역할과 문화 단체의 탄소 발생을 낮춤으로써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창조적 교육학의 친절함, 보살핌 그리고 치유성

피터 셀러스 (Peter Sellars)

연출가 / UCLA 교수, 미국

피터 셀러스는 인종, 전쟁, 빈곤 및 국제 난민 위기와 같은 도전적인 도덕적 문제를 다룬 작품을 바탕으로 위기의 시대 예술교육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자신의 예술에 책임지는 일

요조 (Yozoh)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싱어송라이터 / 작가, 대한민국

뮤지션으로서 본인의 작업 외에 탄소 배출을 낮추는 생태적 삶을 실천하며 새로운 문화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요조의 생태적 삶과 예술가의 책임에 대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개막 영상

모두의 목소리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예술을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박재현 (Park Jae Hyun)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사회복지사

“문화예술은 아이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을 마련하고 되찾아 가는 과정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의 아동보호치료시설 ‘돈보스코 오라토리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및 대안교육 기관이다. 박재현은 사회복지사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행정을 전담하는 교육팀 팀장으로 활동 중이며, 아이들에게 바리스타 교육과 제빵을 가르치고 있다.



이원철 (Lee Won Cheol) & 문향영 (Moon Hyang Young)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노인영상미디어 참여자

“비록 저의 목소리가 작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잔잔한 감동과 공명을 주고 싶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직후 미디어를 통해 삶을 즐기고 있다. 영상으로 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담아내는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니어 영상제작단의 막내로서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다. -이원철-

시니어 영상제작단 창단 멤버로, 시니어 뉴스 제작 교육에 참여한 이후 미디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 회장직을 맡아 이끌어가고 있으며, 제작단이 만든 단편영화에서 주인공으로 생애 첫 연기에 도전하기도 했다. 또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공모전 수상을 하기도 했다.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한 미디어 활동은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문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향영-



윤주아 (Yoon Jua)

구로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

“오케스트라 연습은 늘 설레고 신이 나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재즈클럽에서 연주해보고 싶어요!”

윤주아 단원은 구로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구로'에서 5년간 콘트라베이스를 맡으며 정기 연주회의 사회자 및 협연 연주자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년이 꿈의오케스트라 마지막 시기이기에 하루하루 더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있다.



김나예 (Kim Naye)

예술교육 생명나무 예술가 교사

“사람의 내면을 위로하는 예술가, 예술강사로서 저의 꿈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가 교사로 활동 중인 김나예는 영등포여자고등학교의 연극동아리 <온새미로>를 통해 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교육 연극을 통해 자신과 마주하고, 일상의 환기가 되는 경험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다. 막연한 꿈을 교육 연극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현재 <예술교육연구소 생명나무>에 소속된 예술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상원초등학교, 난우중학교, 선유중학교,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등에서 수업을 이어왔다.



김인규 (Kim In Gyu)

작가

“문화예술은 모두가 본연의 삶을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미술 교사로 지내오면서 학교밖에서 미술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을 함께 해왔다. 현재는 개인작업과 동시에 발달장애 아이들과 지역사회 미술 활동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예술은 삶 속의 모든 과정임을 느끼고, 알리고 있다.



김복순 (Kim Bok Soon)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연극반 참여자

“연극하며 대사를 하는 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연극은 내 삶의 즐거움입니다.”

2019년 JTBC '눈이 부시게'에도 출연하여 극중의 역할을 진심을 다해 도전했다. 캐릭터에 몰두하여 극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연극의 즐거움을 깨닫고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 그 활력으로 앞으로도 연극을 통해 계속 나이를 잊고 마음을 되돌아보는, 영혼이 빛나는 삶을 이어가고자 한다.



모더레이터

박신의 (Shin-Eui Park)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이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이다. 주요 연구 주제는 '예술의 사회적 영향', '예술치유', '예술기업가정신', '박물관 경영', '문화정책' 등이다.

**성지수** (Jisoo Sung)

컬렉티브 뫼글 대표, 대한민국

성지수는 한국의 축제 기획자이자 공연예술 연출가, 연구자, 기후위기 활동가다. 요즘은 기후정의 창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컬렉티브 뫼글은 신체성과 공간성과 의미와 본질을 만나기 위해 다원적인 예술 언어를 기반으로 '노는' 존재들이다. 2020년 <기후정의 창작집단 선언>을 했다. 성장, 개발, '먹고사니즘'이 0순위인 세상에서 예술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이미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하자이자 균열이었으니, 더 신나게 "성장을 빙자한 착취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상미** (Sang-Mi Mo)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 대한민국

모상미는 시각예술인 단체 모이다아트협동조합 대표로 활동 중이다. 2001년부터 '금속공예공방', '한국문화예술진흥회', '국제미술의거리', '부산기념품10선협의회' 등에서 활동하며 부산의 예술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예술가의 시각에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는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은 부산지역 내 문화예술 확산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시각예술인들의 단체로 지역과 문화예술을 잇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단체이다. 시각예술인들과 함께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는 아트마켓과 해양도시 부산을 담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및 바다환경을 테마로 하는 비치코밍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진숙** (Suzy Jinsuk Gang)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장, 대한민국

강진숙은 문화예술 경영 정책 분야를 전공하고 공공 예술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예술이 사회와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런던 유학 시절 산업사회 이후 문화예술적 도시재생의 역할과 그 영역들에 대해 연구하면서 한국에 적용하는 실제적 방법을 고민했다. 그리고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건립하고 조성하면서 그 실제 사례를 보여주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업사이클을 주제로 하는 전문공간을 운영하면서 그 개념을 시민과 관람객에게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공간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업사이클 공간으로 유럽에까지 진출하는 업사이클의 선두주자인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이끌면서 이제 그는 업사이클을 넘어 친환경 에코디자인 산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창업 보육센터까지 운영 중이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폐자원을 예술로 재탄생시키는 국내 최초의 업사이클 문화예술 공간이다.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업사이클 주제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2015년 6월 12일 개관했다. 업사이클을 주제로 작품 전시, 공모전, 체험교육, 청소년 행사, 공연, 예술시장, 지역기부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희** (Jinhee Park)

상상창고 숨 대표, 대한민국

박진희는 현재 탐라미술협회, 제주여민회, 상상창고 숨 대표로 활동 중이다. 1995년부터 미술모임 '우리', '미술읽기', '청년미술', '숨 조형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예술가들과 많은 질문과 토론, 그리고 현장 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였다. 2013년 번아웃의 위기감과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을 위해 제주도로 자발적 유배를 떠나와 여행자의 삶을 꿈꾸어 보기도 하였다. 현재는 제주의 작은마을 모퉁이에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예술로 일상을 넘나드는 작업에 몰입하고 있다.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 나답게, 우리 함께 사는 삶을 위해 좋은 질문을 만들어 가고 감각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내는 커뮤니티아티스트로 나아가고 있다.

상상창고 숨은 '삶 닮다 예술, 예술 닮다 삶' 슬로건을 가지고 삶을 담아내고 닮아가는 예술, 예술을 닮아가고, 삶을 담아내는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 그룹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잇고 시간과 공간을 잇는 관계의 감각을 키워간다.

좋은 질문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사유하며 삶에 작동되는 호기심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워가는 예술 감수성은 섬세한 감각으로 삶의 곳곳에서 틈을 포착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나눈다. 무엇인가 함부로 하지 않는 시선을 장착해가며 가치 있는 것들을 공감하는 예술교육을 지향하며, 누구에게나 비빌 기지가 되어 줄 수 있는 함께 사는 삶을 항상 응원한다.

시간			프로그램	주제	발제자
GMT -4 NY(EDT)	GMT	GMT +9 Seoul(KST)			
00:00-00:40	04:00-04:40	13:00-13:40	기조발제 1	예술교육 2.0에서의 다양성 모더레이터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에른스트 바그너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독일)
00:40-02:25	04:40-06:25	13:40-15:25	세션 1 : 현장사례연구 1	모더레이터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대한민국)	
				극장은 '작은 지구'입니다	정용성 (국립극단 팀장, 대한민국)
				팬데믹 시기, 예술의 변화	이은수 (국립현대미술관 주무관,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처: 성북 '예술순환로' 프로젝트 사례 중심	김소원 (성북문화재단 학예연구사, 대한민국)
				수상한 식탁	김수연 (경성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창의적인 온라인 워크숍 만들기	이보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02:25-03:55	06:25-07:55	15:25-16:55	세션 2 : 예술 치유	모더레이터 글로리아 자파타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콜롬비아)	
				예술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들의 심리 지원: 증거 자료와 예술교육실천가를 위한 가이드	티나 쿠코넨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캐나다)
				급변하는 세계 속 사회적 안정의 원천으로서 연극 교육과 예술교육의 중요성	사냐 크르노마노비츠 타시치 (국제연극교육협회(IDEA) 이사장, 세르비아)
				6학년 창의 예술 수업 내 생활 기술 개발을 위한 퍼포먼스 교육학	엠시 베트만 (남아프리카 대학교 조교수, 남아프리카 공화국)
				팬데믹 시대 미술치료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김채연 ((사)한국임상미술치료협회 회장, 대한민국)
			세션 3 : 사회적&문화적 포용	모더레이터 넬리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팬데믹과 관계없이 비대면 예술교육이 필요한 세계 아이들에 대한 고찰	김태희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다름의 세상에서 성장하기: 싱가포르의 삶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 이야기	살린 라헨드란 (난양 공과대학교 조교수, 싱가포르)
				무용과 언어 교육의 결합: 위기의 시대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창의적 대응	난 장 (모내시 대학교 박사과정생, 중국)
				주의력 및/또는 과잉 활동 장애가 있는 4-8학년 학생을 위한 정서적 자기 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예술 활용 다중사례연구	야라 도크래트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03:55-05:10	07:55-09:10	16:55-18:10	세션 4 : 서울 어젠다	모더레이터 김인철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예술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 가치, 도전, 가능성	벤저민 불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넬리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환경 예술가와의 대화, 젠 테: 과정과 교육학적 가능성 탐구	치후 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젠 테 (환경예술가 및 교육자, 싱가포르)
				시각예술교육: 자연의 연속과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세계를 이어주고, 풀어주고, 지속하며, 키워주는 글로컬 맥락	캐서린 콜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마크 셀크리그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애비 맥도널드 (태즈메니아 대학교 부교수, 호주)
05:10-06:10	09:10-10:10	18:10-19:10		온라인 만남의 광장	

기조발제 1

13:00-13:40

예술교육 2.0에서의 다양성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문화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술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적 대화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발제자

에른스트 바그너 (Ernst Wagner)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모더레이터

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예술교육 2.0에서의 다양성

Diversity In Arts Education 2.0

에른스트 바그너 (Ernst Wagner)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배경: 본 발제는 자국이 이민 사회임을 ‘발견’한 이후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한 독일의 시각 예술교육을 바탕으로 한다. 소위 난민사태로 불린 2015년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점점 다양해지는 다문화사회를 직면함에 있어 예술교육 역시 재정비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본 논문의 첫 장에서는 이에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세계화와 비식민지화 담론이라는 새 지평을 마주한 지금 그 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와 설계: 초국가적 프로젝트인 www.explore-vc.org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은 예술과 교육 그리고 예술교육에 있어 서로 다른 혹은 같은 이해에 대해 비계층적, 국제적 접근을 취하며, 세계 시민을 교육함에 있어서 학교와 문화기관에서 이와 같은 복합적 다양성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 교사가 함께 교육 개념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본 과정은 교육 내용과 주제(예를 들어, 예술 작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와 관련된 기술(예를 들어, 해석과 창작)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두 가지 차원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연구 결과와 논의 사항: 개발된 교육 모델들은 맥락 특정적(중부 유럽)인가, 아니면 타 지역으로도 전환 가능한가?



에른스트 바그너 (Ernst Wagner)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에른스트 바그너는 독일 뮌헨 예술 아카데미에 강사 및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시각 문화 탐구” 프로젝트(www.explore-vc.org)를 진행하고 있다. 주 연구분야는 예술교육, 탈식민화교육을 위한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역량 모델이다. 뮌헨 예술 아카데미를 졸업했으며, 그의 작업은 독일과 미국에서 전시된 바 있다. 이후,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미술사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학교교육평가연구원(Institute for School Quality and Research in Education)에서 재직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에를랑겐 니른베르크 대학교 내 유네스코 문화예술 석좌프로그램의 선임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다. 현재 예술아카데미를 비롯해 뮌헨, 에를랑겐 니른베르크, 힐데스하임, 인스브루크 등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모더레이터

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국립교육원 영상공연학그룹(NIE)의 음악교육학과 부교수이자 동대학 교육예술연구센터(CARE)의 코디네이터이며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의 회원이다. 치후의 연구 관심사는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및 다문화주의, 음악 교육에서의 기술과 세계화, 아이들의 음악 문화, 창의성과 즉흥성, 그리고 초등 음악 방법 등이다. 그는 현재 음악교육연구저널(JRME), 음악교육연구조사(RSME), 영유아를 위한 국제음악저널(IJMEC)의 편집위원이다.

토론자

글로리아 자파타 (Gloria P. Zapata) / 콜롬비아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홍유진 (Yujin Hong)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베나민 외리센 (Benjamin Jörissen)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정회원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

타냐 클레팩키 (Tanja Klepacki) /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선임 연구원

세션 1

13:40-15:25

현장사례연구 1

한국 문화예술교육 실천가·교육가·기관별 사례를 통해 예술교육의 위기를 창조적으로 돌파하는 방법과 사회 위기 해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모더레이터

홍기원 (Kiwon Hong) / 대한민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제자

정용성 (YongSung Jung) / 대한민국

국립극단 팀장

이은수 (Eunsu Lee) /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 주무관

김소원 (Sowon Kim) / 대한민국

성북문화재단 학예연구사

김수연 (Su-youn Kim) / 대한민국

경성대학교 조교수

이보람 (Boram Lee) / 대한민국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부교수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모더레이터

홍기원 (Kiwon Hong) / 대한민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학을 전공하고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문화정책연구의 학제 간 연구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는 연구자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경영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은 한국의 문화정책에 대한 역사제도주의적 분석, 문화다양성과 성평등, 예술경영학의 정체성과 직업윤리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자체평가 및 경영평가), 서울시 투자심사,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서울문화재단 이사 등의 활동을 통해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고 있다.

극장은 ‘작은 지구’입니다

정용성 (YongSung Jung) / 대한민국

국립극단 팀장

우리는 극장에서 환상과 마주한다. 이처럼 예술가와 관객이 만나는 공간인 극장은 ‘작은 지구’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작은 지구는 매일 밤 탄생했다가 소멸한다. 또한 극장은 많은 자원이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극장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에서는 해외와 한국의 공연장들의 탄소 발자국 감소 노력을 소개한다. 첫째로 영국을 비롯한 해외 공연장의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의 국립극단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국립극단은 서울에서 명동과 서계동에 3개의 극장을 운영 중이다. 명동예술극장은 1930년대에 개관했다. 하지만 이 공간은 1970년대에 민간에 매각되었다. 2000년 초반에 이르러 이곳을 다시 극장으로 재건축하였다. 서계동에 있는 두 개의 극장은 2000년 초반까지 한국군의 수송센터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재활용했다. 지금은 국립극단의 사무실과 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은 지구를 위해 탄소 발자국을 줄여 나가는 국립극단의 다양한 노력을 살펴본다.



정용성 (YongSung Jung) / 대한민국

국립극단 홍보마케팅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현재 국립극단은 연극을 제작하는 예술단체이면서 3개의 공연장(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을 운영하며 홍보와 마케팅뿐만 아니라 티켓(매표소)관리와 하우스매니지먼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그는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는 관객개발, 공연 마케팅, 자원 조성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팬데믹 시기, 예술의 변화

이은수 (Eunsu Lee) /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 주무관

코로나19는 수많은 일상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하여, 개인 위생과 철저한 방역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낯설 만큼 빠르게 익숙해졌으며, 전 지구적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을 통한 관계 맺기는 계속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달라지는 관계 속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코로나 이후 미술관'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코로나19, 재난과 치유>, <생태예술: 대지의 시간>, <평화예술: 온>, <미술원, 함께 사는 법> 등의 전시는 시의성 있는 주제와 화두를 다루는 주제 기획전이다. 현재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방식을 현대미술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팬데믹이 개인과 삶 전체에 미친 영향과 이후 세계에 대한 고민을 다루고 있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위의 전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와 결부된 해석을 찾고, 그에 따른 예술의 사회적 실천에 대해 살펴본다. 그 중, 환경친화적인 부분들에 대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미술관에서 '지속 가능한 시도'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해본다. 그에 앞서, 최근 세계 여러 박물관·미술관에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 활용 사례들을 바탕으로 대중이 참여하고, 인식을 변화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 역시 미술관을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보고, 당연한 중요 과제의 해결을 위해 미술관에서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의미와 실현 방법에 대해 미술관 실정에 맞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은수 (Eunsu Lee) /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작가와 작품 등 다양한 시각예술 콘텐츠를 관객을 중심으로 소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갖고 있다. 서울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기관 내 독보적으로 고객센터 전담 주무관으로 활동하며 보다 나은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미술관 접점의 고객지원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여 전문성과 동시에 공공의 문화공간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특정 사업으로 육성하는 등 현장 운영부터 서비스 기획까지 관리하는 총괄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문화예술경영학 박사과정을 수학과 있다.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처: 성북 '예술순환로' 프로젝트 사례 중심

김소원 (Sowon Kim) / 대한민국

성북문화재단 학예연구사

본 연구는 '위기 대처'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관련 사례를 고찰하는 메타적 제안이다. 대부분의 위기 대처에 대한 함의는 특정 위기상황을 대상화하고 그것에 관한 성공적인 돌파법과 실천사례를 나누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시도들 자체는 매우 훌륭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예술계가 예산 축소, 행사 취소 등의 악재를 넘어, 예술의 사회적 필요성 각인과 존재증명에 나서야 하는 최악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은 전혀 다른 국면이다. 이것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예술적 실험, 연구, 실천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의 자각을 일깨우며, 예측 불허의 급격한 외부적 상황 변화에서도 항상성을 유지하고 작동을 멈추지 않는 단단한 예술 생태계와 내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를 촉진시킨다. 이에, 수년간 아트 거버넌스 실험을 주도하고 경험해 온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적이고 자립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장해 가는 성북의 '예술순환로' 프로젝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팬데믹 사태 이전부터 준비하고 현재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지역 기반의 다층적·다자적 오픈 네트워크'라고 명명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지역 예술가의 안정적인 활동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 요소로 '거점공간과 수익창출구조 확보'를 상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자립에 필요한 연구를 위한 '예술생태계 스테디',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예술 축제 '동네 쌀롱제', 성북의 지역연구조사에 관심있는 주체들이 모인 '지연연구팀 오리랩', 여러 주체가 운영하는 공유공간 운영실험 '요슬랩프'를 함께 기획, 운영하고 있다. 예술생태계라는 개념이 대체로 추상적인 언명에 그치거나 비유기적 주체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엮어 놓은 것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 사례 연구는 그에 대한 좋은 본보기이자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안 및 위기 대처의 의미를 확장적으로 해석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변화 되는 동료와 새로운 주체 참여 도모 전략, 거점공간과 관련한 민간 파트너 협력체계 구축, 온전한 자립과 민관협치 사이에서의 유연한 운영,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과 실행 등은 남겨진 과제로 파악된다.



김소원 (Sowon Kim) / 대한민국

김소원은 이화여대 서양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후 전시기획, 글쓰기, 연구 기반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성북문화재단 학예연구사 재직하며 다양한 전시를 기획해오고 있으며,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 박사 과정을 겸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관심사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전시와 글로 실현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성북어린이미술관에서 어린이와 어른에 경계를 두지 않는 시의성 있는 주제의 전시들을 기획하고 있다.

수상한 식탁

김수연 (Su-youn Kim) / 대한민국

경성대학교 조교수

기후변화나 환경문제는 일부의 국가나 개인들의 힘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운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이어지는 문제는 ‘어떻게?’일 것이다. <수상한 식탁>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기 보다, 연극 공연과 활동을 통해 이들 사안에 대해 즐겁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에서의 연극(Theatre-in-Education, 이하 TIE)’ 형식을 차용했다. TIE는 196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 이후 여러 국가로 전파된 교육연극 형식이다. TIE 프로그램은 뚜렷한 교육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공연 파트와 참여자들에게 활동 기회가 부여되는 연극 워크숍 부분으로 구성된다. 참여학생은 공연을 통해 일시적인 극적 상황에 실재인 듯 몰입하게 되고, 워크숍을 통해 흥미롭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 <수상한 식탁>은 버려진 플라스틱이 어떻게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오는지 보고,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상한 식탁>은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본 발제는 <수상한 식탁>은 한국에서 어떻게 기획, 실행되었는지 공유하고, 현재와 같은 팬데믹(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상으로 TIE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 참석자들과 함께 연극, 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수연 (Su-youn Kim) / 대한민국

김수연은 대략 20여 년이 조금 넘는 극 예술가와 예술교육 전문가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연극이 건강한 학교와 사회 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을까이다.

창의적인 온라인 워크숍 만들기

이보람 (Boram Lee) / 대한민국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부교수

본 논문은 노 스트링스 어태치드 장애 극단 (No Strings Attached Theatre of Disability) 예술가들의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참여로 얻게되는 사회적 영향력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참여자들 간에 사회적 관계 구축을 독려했던 이 워크숍은 전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립의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장치로서 제안되었다. 제한된 사회적 접촉으로 인해 전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개별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장애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본 글은 이 온라인 워크숍이 이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는지를 고찰한다. 또, 예술과 문화활동에 있어서 참여로 얻게되는 사회적 영향력을 다룬 이론들을 살펴보고,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의 역할을 탐구하는 한편 코로나 시대 접근성과 사회적 연결을 돕는데 있어서 기술의 역할,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방법과 모델들을 고찰한다.



이보람 (Boram Lee) / 대한민국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에서 행동 금융학을 전공하였고, 심리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예술 문화 단체와 개인의 경영 경제 연구를 하고 있다.

2014년 영국 연구 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신진 작가 경력 개발에 참여하였고, 사회 예술 경제적 가치 창출에 관한 프로젝트·2018년 르 꼬르동 블루 지원 애들레이드의 축제와 관광 프로젝트·2019년 한호재단 후원 한국 호주 장애 예술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예술 산업 분야에 있어 광범위한 분야에 연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션 2

15:25-16:55

예술 치유

현대 사회가 유발하고 있는 많은 심리적·정신적 질병에서도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고, 사회와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개입하는 예술적 치유방법론을 모색합니다.

모더레이터

글로리아 자파타 (Gloria P. Zapata) / 콜롬비아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발제자

티나 쿠코넨 (Tiina Kukkon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사냐 크르노마노비츠 타시치

(Sanja Krsmanović Tasić) / 세르비아

국제연극교육협회(IDEA) 이사장

엠시 베틀만 (MC Bettman)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대학교 조교수

김채연 (Chaeyeon Kim) / 대한민국

(사)한국임상미술치료협회 회장

모더레이터

글로리아 자파타 (Gloria P. Zapata) / 콜롬비아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에서 유네스코 체어를 맡고 있다. 그녀는 로햄튼 대학에서 음악심리학과 음악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안티오키아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콜롬비아의 교육부와 문화부에서 컨설턴트로 일해왔다. 그녀의 연구 관심은 음악 발전 및 문화적 맥락과 교육 사이의 관계에 있으며, 콜롬비아 분쟁으로 영향받아 취약해진 지역사회와 교육 기관들과 함께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예술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들의 심리 지원: 증거 자료와 예술교육실천가를 위한 가이드

Supporting Youth Mental Health in and through the Arts: An Evidence Base and Guide for Teaching Artists

티나 쿠코넨 (Tiina Kukkon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코로나 팬데믹의 정확한 피해 범위는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초기 증거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 및 청소년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접근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를 자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위한 예술 기반의 개입, 프로그램의 성과는 이미 과거에도 증명된 바 있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전문 예술인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자신감, 사회적 소속감 등 정신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에서 예술교육실천가들과 교류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한 청년 및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관리, 공동체 형성, 회복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의 맥락에서 예술교육실천가들은 예술교육과 예술 치료 사이의 모호한 “회색시대”를 마주하게 된다. 적절한 지원과 전문적인 훈련 없이 예술교육실천가들은 복잡한 정신 건강학적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대하며 윤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본 발제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증거들과 함께 예술을 통해 청년 및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예술교육실천가들을 위해 지침을 제시한다. 비록 예술 치료와 사회 복지 분야의 문헌을 주로 참고했으나, 이 지침은 교육적 실천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교육가와 치료사 사이의 차이를 강조한다. 예술이 어떻게 청년 및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예술교육실천가와 예술교육가들을 위한 실용적 제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티나 쿠코넨 (Tiina Kukkonen) / 캐나다

캐나다 퀸스턴에 있는 퀸스 대학교 교육학부의 박사과정생이자 예술교육자, 그리고 시각예술가다. 박사학위 연구는 농촌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간 조직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 예술 및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유네스코를 위한 캐나다 위원회, 퀸스 대학교 예술 및 교육의 유네스코 의장과 공동으로 “예술교육에 대한 혁신적 행동: 서울 어젠다 재활성화”라는 성명서를 공동 집필했다. 티나는 현재 캐나다 예술교육 협회(CSEA)의 집행 위원회에서 지방 연락, 소셜 미디어, 지지에 대한 이사직을 맡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속 사회적 안정의 원천으로서 연극 교육과 예술교육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Drama / Theatre Education and Arts Education as the Source of Stability in an ever Changing World

사냐 크르노마노비츠 타시치 (Sanja Krsmanović Tasić) / 세르비아

국제연극교육협회(IDEA) 이사장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많은 측면에서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21세기 자본주의의 독재가 낳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소외, 개인화, 만연한 경쟁, 완벽주의와 같은 문제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본 발제는 예술교육 프로젝트들에 대한 사색적 여정으로,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응하는 실천 사례로서 나와 내 동료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다룬다. 국제 커뮤니티인 국제연극교육협회(IDEA), 세르비아의 흘레브 극단(Hleb theatre)과 아티스틱 유토피아(Artistic Utopia) 그리고 예술교육 연극 센터(Centre for Drama in Education and Art) 등에서 연극을 통해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기획되어 이후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R U In?(Are you in?)>의 대상이 되기도 한 <함께(Togetherness)>,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축제 <마테르 테라(MATER TERRA)>, <연극을 통한 리스본 핵심 교육 역량 강화 프로젝트(Drama Improves Lisbon Key Competencies in Education)> 프로젝트 등 유럽 12개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또, 지난 10년간 개발한 “영혼의 생태계(Ecology of the Soul)” 개념과 아프리카의 우분투와 같은 인류학적 실천과 개념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동체 정신을 중시하고, 모두 연결되어, 사고하고 느끼는 인간으로서 모든 개인들을 바라보는 고대의 전통 사상을 소개할 것이다. 즉, “인류를 다시 인류화” 하는 과정에서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우리의 신체와 물리성을 다시 이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방법론의 중요성을 고찰한다.

연극 교육을 중심으로 보다 조화롭고 강하며, 인류애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데 예술교육이 바탕이 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냐 크르노마노비츠 타시치 (Sanja Krsmanović Tasić) / 세르비아

연극 감독, 안무가, 배우, 드라마, 무용 교육자이다. 또 세르비아의 중등교육 기관에 최초의 무대장치 예술 및 멀티미디어 수업 커리큘럼을 집필하는 전문가 실무 그룹의 멤버이며, 세르비아의 예술교육 연극 센터(CEDEUM)의 회장이자 예술 유토피아, 그리고 ‘마테르 테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축제 예술 감독, 그리고 드라마/극장 교육 및 공연 예술에 대한 에세이, 리뷰 및 기사 집필자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세르비아 연극을 통한 리스본 핵심 교육 역량 강화 프로젝트(Drama Improves Key Lisbon Competences) 연구팀원으로 활동했다. 사냐는 2020년 5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일환으로 “예술교육을 위한 중”이라는 광범위한 국제 운동을 시작했다.

6학년 창의 예술 수업 내 삶의 기술 개발을 위한 수행론적 교육학

Performative Pedagogy to Develop Life-skills in Grade 6 Creative Arts classrooms

엠시 베티만 (MC Bettman)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대학교 조교수

토론연극(Forum Theater)과 같이 예술교육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바탕이 되는 사례연구는 보알의 토론연극이 어떻게 6학년생들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 교사에 의해 연구진들이 설계한 프로그램이 남아프리카의 초등학교 4개반의 '창의 예술' 수업에서 6주간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중급 '창의 예술'이 해당되는 '삶 지향'을 위한 교육과정 평가 정책(Curriculum Assessment Policy Statement for Life Orientation)의 연구 기반 지침의 요구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수업은 학생들이 비언어적 표현능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활동과 게임으로 시작된다. 문화에 따라 움직임의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는 상호 이해가 가능하다.

학생들에게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난관을 표현하는 시나리오의 즉흥극을 만들도록 했다. 학생들은 극적인 갈등 장면으로 구성된 즉흥극을 만들었다. 본 사례의 마지막 토론연극 수업에서 각 반은 자신의 갈등 장면을 다른 6학년생들 앞에서 연기했다. 보알이 '조커'라고 일컫는 교사의 지도 하에 각 관객은 공연된 갈등 상황을 설명하고 그 해결 방법을 의논하도록 했다.

본 연구의 결과 학생들은 능숙하게 문제를 규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에 해당되는 문제의 해법을 연기하지는 못했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교사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행동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했다.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한 교수법은 경험이 많은 교사에게도 자신의 안전지대 밖의 것이었다. 연극 교육이나 사전에 정해진 대화와 캐릭터를 갖고 극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새로운 드라마 장면을 창작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매우 낯설고 힘든 경험이었다. 경험적 퍼포먼스 교육 전략에 대한 부분은 교사의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엠시 베티만 (MC Bettman) /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대학교 영어학부의 조교수이며, 2020년에 남아프리카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베티만 박사의 논문 제목은 "남아프리카 초등학교 교육 및 학습 생활 오리엔테이션에서 성과적인 교육학으로서의 포럼 극장"이다. 그녀의 전문 연구 분야는 보알(Boal)의 포럼 극장을 학교 맥락에서 적용하여 드라마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미국 NADTA 요세미티 회의(2014년)와 호주 시드니 게임 체인저 콘퍼런스(2015년)에서 그녀는 두 개의 포럼 극장 워크숍을 국제 학술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팬데믹 시대 미술치료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김채연 (Chaeyon Kim) / 대한민국

(사)한국임상미술치료협회 회장

코로나19의 출현은 의료보건, 공공안보, 경제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위협을 끼쳤으며,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특히, 강제적인 활동의 제한, 일상·여가 활동의 축소, 미디어에 보도되는 부정적 정보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인간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안, 우울, 두려움, 분노, 외로움, 좌절감, 슬픔 등 여러 가지 정신적 갈등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개인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심리방역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였고,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심리상담 및 치료 중에서 특히 문화·예술을 통한 심리치료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치유는 인간의 병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 유연성, 심미성이라는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잠재력, 성장 가능성을 개발하는 자기경험과 자기본성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즉, 문화예술치유는 인간의 건강한 자아를 재발견하고 병을 예방·약화하거나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김채연 (Chaeyon Kim) / 대한민국

미술치료사이자 비영리법인 한국임상미술치료협회 회장이다. 미술치료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문화예술경영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녀를 미술치료사의 길을 걷게 하였다. 그녀는 풍부한 사례와 근거를 통해 마음이 아프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미술치료사로 22년간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그녀는 많은 사람이 미술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치유 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션 3

15:25-16:55

사회적 & 문화적 포용

평등·다문화·고립 등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해 예술교육이 창조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와 문화를 건설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모더레이터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발제자

김태희 (Tei Kim) / 대한민국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

샬린 라헨드란 (Charlene Rajendran)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조교수

난 장 (Nan Zhang) / 중국
모내시 대학교 박사과정생

야라 도크라트 (Yaara Docrat) / 캐나다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모더레이터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네릴은 멜버른 대학 교육대학원 예술·창의 교육 및 음악 교육 부서장이다. 네릴의 연구는 교실 및 비(非)학교 환경에서의 참여, 예술 교사 교육,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예술 작업, 일반적 역량으로서의 창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네릴은 호주 음악 교육 협회(Australian Society for Music Education) 회장 및 국제 음악 교육 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정책위원회 회장 등 주요 음악 교육 기관에서 대표직을 수행했다. 네릴은 음악 커리큘럼 정책 설계와 관련하여 경력을 쌓았으며,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교육청, 교육위원회, 뉴 사우스 웨일즈 교육 및 교육 표준기관, 빅토리아 및 빅토리아 교육 과정 및 평가 기관의 고문을 맡았다. 또한 호주 음악교육회(Australian Society of Music Education)의 회원이며,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의 연사 및 간사이다.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팬데믹과 관계없이 비대면 예술교육이 필요한 세계 아이들에 대한 고찰

김태희 (Tei Kim) / 대한민국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

코로나19의 세계적 감염으로 인해 예술교육자들은 창의적인 영역인 “예술”과, 상호작용의 영역인 “교육”이 합쳐진 “예술교육”에 있어 과연 비대면 수업이 효과적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새도 없이 그 매체와 방법을 찾는데 바쁜 시간을 보냈다. 비대면 교육은 학교를 넘어 예술가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예술교육 전반에까지 요구되었고, 예술교육자들은 짧은 시간 제법 많은 비대면 예술교육 사례와 교수법을 개발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팬데믹과 관계없이 비대면 예술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자, 가장 효과적인 수요자를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바로 예술교육자들이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 속에서 대면으로 예술을 나눌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전 세계 사각지대의 아이들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약 6,850만 명의 난민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18세 미만 아이들이다.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 중에 있고 화재나 지진, 쓰나미, 허리케인 등에 의한 기후재난은 아이들의 희생과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중증 환자들도 예술교육을 대면으로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시 일상과 학교로 돌아가겠지만 이 아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거나 일상이 재난과 재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예술을 표현하고 즐길 권리가 있으며, 특히 예술교육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네스코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재난, 재해 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라디오와 키트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교육을 이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지나간 뒤에도 계속 위기 속에 있을 아이들에게 왜 비대면 예술교육이 필요한지, 또 유네스코와 세계 예술교육자들이 코로나19 시기 동안 고민하며 구축한 비대면 예술교육을 어떻게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킬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전 세계 예술교육자들이 전염병의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늘 위기 속에 있었을 아이들을 함께 기억하며, 비대면 예술교육의 연구와 실행의 팔을 보다 넓게 뻗어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김태희 (Tei Kim) / 대한민국

예술가이자 예술교육자로서 저술과 강연, 연구와 컨설팅, 예술 활동을 통해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본능과도 같은 모두의 예술할 권리를 주장, 옹호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주간 예술감독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동아일보(여성동아) 예술감독 및 지자체 문화재단과 정부, 기업에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http://www.artandhope.com>

다름의 세상에서 성장하기: 싱가포르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Growing Up in A World of Difference: Staging Stories about Multiplicity by Living with Diversity in Singapore

살린 라헨드란 (Charlene Rajendran)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조교수

본 논문은 싱가포르의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평적 능력을 키워주는 자원으로서 극 예술가의 삶의 경험이 지니는 가치를 탐구한다. 다언어, 다인종의 도시 사회에서 성장한 기억이 연극 작업과 리더로서의 선택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싱가포르의 극 예술가 5인의 경험을 조명한다. 본 논문은 다양성의 개념이 어떻게 기존의 문화정체성, 경계 등에 의구심을 갖도록 했으며 문화경관을 재구성해 보다 포괄적인 정체성의 틀을 갖추도록 했는지를 살펴본다. 또, 실제 삶과 무대 위의 이야기를 비평적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함으로써 다양성과 차이를 학습함에 있어 유용한 교육학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치와 신념을 재해석, 재고하는 공간으로서 이야기는 일상 속 깊숙이 자리하거나, 새롭게 나타난 문화화 특질들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다. 불확실성과 불안이 만연한 코로나 시대,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이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표현, 공유되며 인간성에 대한 상상, 아이디어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을 드러낸다. 알피안 사트, 엘빈 탄, 하레시 샤르마, 콕 형 른, 옹 켝 셴 등 극 예술가들의 성장 이야기 속에서 다양성에 대한 이들의 고민과 통찰, 감수성과 비평, 그리고 공감을 통해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평적 문헌을 고안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들의 실제 삶과 거기서 출발한 무대 위 이야기들 사이의 접점을 제시하고 현대인들의 삶 속 과제와 갈등을 반영해 문화와 정체성 두 개념을 엮어낸다.



살린 라헨드란 (Charlene Rajendran)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국립교육원의 조교수이다. 연극교육자, 연구자, 극작가인 살린의 관심사는 현대 연극, 연극 기반의 교육학, 차이점에 대한 문제, 예술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녀는 다양한 예술가들과 공동작업을 했으며, 아시아 드라마터그 네트워크(Asian Dramaturgs' Network)의 공동 책임자이다. 그녀가 출판한 책은 『동남아시아를 공연하기(Performing Southeast Asia: Performance)』, 『정치와 동시대성(Politics and the Contemporary(2020))』 및 다양한 학술논문 등이 있다.

무용과 언어 교육의 결합: 위기의 시대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창의적 대응

Integrating Dance and Language Education: A Creative Response to Social Diversity and Equity in and through a Time of Crisis

난 장 (Nan Zhang) / 중국

모내시 대학교 박사과정생

상호의존적인 글로벌 세계에서 언어는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다. 국제적 맥락에서 상호작용, 소통능력은 점차 필수적인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2외국어의 습득, 심지어 제3, 제4외국어는 지역적, 국제적 소통을 가능하게끔 해준다. 사회적 다양성 그리고 평등과 깊이 연관된 다양한 외국어의 습득, 학습, 유지는 호주와 같은 다문화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세대가 바뀌면서 많은 이주민들과 제2외국어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에게 그들의 유산, 문화, 문화간 이해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이후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무용과 제2외국어 교육의 결합은 이에 대한 창의적 대응 방안으로서 아직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서로 다른 학생 집단에 맞춰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개발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모든 외국어 교사들이 무용 전문가이거나, 모든 무용 교사가 외국어 전문가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제2외국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습득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서 무용을 활용하는 교육방식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우리는 자문화기술지, 교육적 감식안, 교육 비평을 차용, 서술적 나레이션을 만들고, 성찰적 분석을 시행, 결과를 평가한 후 주제를 선정해 무용 교육의 영향과 함의를 연구했다. 선정된 주제는 소통 및 언어 능력, 외국어 습득 및 몰입, 인지 학습 전이, 다중 접근 등이다.

본 연구는 무용 활동이 학생들의 제2외국어 능력 및 문화 역량 발전에 주는 이점에 대해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고 제2외국어를 가르침에 있어서 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교육학적 통찰을 제공한다. 학생, 교사, 교육 전문가들이 제2외국어를 교육 및 학습함에 있어서 무용의 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점과 실용적 전략을 바탕으로 제2외국어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에 기여함에 있어 이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난 장 (Nan Zhang) / 중국

중국 베이징 무용 아카데미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마쳤다. 현재, 그녀는 호주 모내시 대학교 교육학부의 박사 후보생이며, 연구 관심사는 무용과 언어 교육, 콘텐츠 및 언어 통합 학습, 다문화주의, 사회적 다양성, 형평성 등이다.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러한 도전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은 바로 제2외국어 교육에 춤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무용 활동이 학생들의 제2외국어 및 문화적 역량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고 무용을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접근법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교육학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주의력 및/또는 과잉 활동 장애가 있는 4-8학년 학생을 위한 정서적 자기 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예술 활용 다중사례연구

Using the Arts to Foster Emotional Self-Regulation for Grades 4 to 8 Students with Attention and/or Hyperactivity Disorder: A Multiple Case Study

야라 도크래트 (Yaara Docrat) / 캐나다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이하 ADHD)는 가장 흔한 아동 정신 장애 중 하나이다(미국 정신 의학 협회, 2013). ADHD를 앓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통제나(McClelland & Cameron, 2012), 특히 교실 환경에서 충동성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의 저하를 보인다(Rapp-Paglicci et al., 2011). 따라서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 이전이나 청소년기에 자기통제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중급 학생(junior-intermediate) 교사들(4-10학년)은 ADHD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Brooks & Boaz, 2005). 또한, 연구에 따르면 예술(음악, 춤, 연극, 미술, 미디어아트)은 주의력이나 과잉행동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ockett & Malley, 2018; Winsler et al.,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JI) 교사는 초등 교사보다 비교적 드물게 예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onard & Odutola, 2016). 언급된 것처럼 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정성적 연구의 목적은 (1)중등 교사와 (2)학생을 중심으로 예술을 통한 자기통제력 발달 방법을 탐구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들이 스트레스 요인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며 기존의 침착함과 주의력을 되찾는 능력을 탐구한 Shanker(2013)의 자기통제론을 기반으로 한다. 다중 사례 연구 방법론(Stake, 2013)은 총 여섯 사례의 실천방법을 살펴보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주의력결핍 장애 및/또는 과잉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세 명의(4~8학년) 교사와, 주의력 결핍장애 및/또는 과잉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4-8학년) 세 명이 포함된다. 사례마다 참가자와 부분적으로 사전 구성된 인터뷰를 진행한다. 정성적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사례나 여러 사례 간에 발견되는 주제를 구체화하는데 사용된다(Thomas, 2006). 본 연구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 교육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야라 도크래트 (Yaara Docrat) / 캐나다

벤저민 볼든 박사(유네스코 예술 및 학습 위원장) 아래에서 수학하는 퀸스 대학교 교육학부의 석사과정생이다. 교육적 관심사는 특수교육과 위기 청소년이다. 연구 관심사는 교육적 관심사, 예술교육, 그리고 정서적 자기 규제를 결합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녀는 노력을 인정받아 2018년에 킹스턴 시민 청소년 자원봉사자 상(Kingston Civil Youth Voluntism Award 2018)을 받았다. 모든 교실에서 예술을 더욱더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사범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핵심 임무에 도달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세션 4

16:55-18:10

서울 어젠다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가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합니다.

모더레이터

김인설 (InSul Kim) / 대한민국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발제자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부교수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젠 테 (Zen Teh) / 싱가포르
환경예술가 및 교육자

캐서린 콜먼 (Kathryn Coleman)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마크 셀크리그 (Mark Selkrig)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애비 맥도널드 (Abbey MacDonald) / 호주
태즈메니아 대학교 부교수

모더레이터

김인설 (InSul Kim) / 대한민국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로, 예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주제들을 연구한다. 문화정책과 거버넌스, 예술경영, 예술교육, 예술 치유, 문화기술, 문화 복지 등 예술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자본 및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가 주요 관심사이다.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문화예술교육분야 등 다수의 국내외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국책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왔다.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예술교육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 가치, 도전, 가능성

Visions of Sustainability for Arts Education: Value, Challenge and Potential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부교수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20년 유니트윈 예술교육 연구 연감의 개요에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케냐, 대한민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등 27개국의 국제적 저자들의 연구를 선보이며 (가) 문화적 지속 가능성, (나) 접근성, (다) 커뮤니티, (라) 발언 존중 등의 주요 주제를 논의한다.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예술교육은 연감의 각 장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졌으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호주와 캐나다의 교육적 맥락에서 진행된 작가 레지던시, 싱가포르의 유아를 위한 문화적 예술 체험, 싱가포르의 전문 음악가와 호주의 교내 음악가의 협업, 그리고 뉴질랜드 한 작은 마을의 댄스 스튜디오 간의 문화적 간극 조율 및 포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각의 저자는 표현을 수용하고 장려하며 문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접근성의 주제는 캐나다와 중국의 농촌 지역의 예술교육이 가진 과제와 가능성, 중국의 공동체 춤, 캐나다의 신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연구 교육, 뉴질랜드의 댄스 스튜디오, 케냐의 예술가들을 위한 경영 및 기술 교육, 홍콩의 풀뿌리 예술 및 문화 활동과 연계해 논의되었다.

저자들은 커뮤니티형 예술 학습과 참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사교댄스, 캐나다의 방과 후 현악 프로그램, 뉴질랜드의 댄스 스튜디오, 독일의 창의적 온라인 코딩 프로그램 '생태계 학습' 및 싱가포르의 전문 음악가들의 잼 세션 등 학교 밖 예술교육이 포함된다.

연구 방식에서 주요하게 드러난 발언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는 호주의 그리스 이주 청소년과 뉴질랜드 스튜디오의 댄스 교사, 캐나다 연극계 출신의 장애 학생들의 참여 경험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학생/작가의 목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육학적 방법론도 논의되었는데, 여기에는 호주의 참여 음악 제작, 캐나다의 방과 후 즉흥 현악 연주 프로그램, 싱가포르의 음악 공연 집단 내 다양한 문화적 표현 등이 사례로 포함되었다.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음악 교육자이자 작곡가이며, 캐나다 퀸스 대학교 교육학부의 부교수이자 유네스코 예술 및 학습 위원장이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예술교육, 음악교육, 작곡의 교육과 학습, 창의성, 예술 기반 연구, 사범교육, 교사 지식, 교사의 전문 학습이다. 그의 연구는 교육 리뷰, 교육과 교사 교육 저널, 음악 교육 연구 저널, 음악 교육가 저널을 포함한 저널에 발간되었다. 벤은 교사로서 캐나다, 영국, 대만의 중등 학생, 대학생들과 함께 일해왔다. 벤은 캐나다 음악 센터(CMC)의 부 작곡가이며, 그의 작품들은 다양한 프로와 아마추어 공연 앙상블에 의해 연주되었다.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네릴 지네렛은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의 간사이자 멜버른 교육대학원(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의 유네스코 예술 연구소 공동 책임자이다.

환경 예술가와의 대화, 젠 테: 과정과 교육학적 가능성 탐구

Dialoguing with Environmental Artist, Zen Teh: Exploring Processes and Pedagogical Possibilities

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젠 테 (Zen Teh) / 싱가포르 환경예술가 및 교육자

2011년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된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의 목표 3은 각국 정부와 공동체들에게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 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예술교육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목표3의 전략 중 하나에서는 ‘환경, 글로벌 이주, 지속가능한 성장 등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사안들’에 중점을 둔 예술교육을 명시하고 있다(서울 어젠다, 2010). 이에 부응하여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예술교육자와의 비평적 대화는 특히 환경문제에 주목해서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싱가포르의 환경예술가 젠 테의 작업과정을 소개한다. 젠 테의 작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출발해, 폭넓은 학제 간 연구와 협업을 요구하는 환경 관련 이슈들을 조망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작업들은 작가가 살아가는 도시 속 자신을 둘러 싸고 있는 미시적, 거시적 관계들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장이면서, 관객들에게는 기쁨으로 인한 오염, 이차림, 야생식물과 같이 팬데믹을 통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사안들을 환기시킨다. 또한, 본 발제를 통해 싱가포르 내 다른 환경예술가들의 작업을 함께 살펴보면, 개인의 경험이 가지는 중요성, 연구에 기반한 협업적 접근, 몰입형 작업의 개발과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 등 예술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함의도 다루고자 한다.



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국립교육원 영상공연학그룹(NIE)의 음악교육학과 부교수이자 동대학 교육예술연구센터(CARE)의 코디네이터이며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의 회원이다. 치후의 연구 관심사는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및 다문화주의, 음악 교육에서의 기술과 세계화, 아이들의 음악 문화, 창의성과 즉흥성, 그리고 초등 음악 방법 등이다. 그는 현재 음악교육연구저널(JRME), 음악교육연구조사(RSME), 영유아를 위한 국제음악저널(IJMEC)의 편집위원이다.



젠 테 (Zen Teh) / 싱가포르

자연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학문 간 연구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이자 교육자이다. 젠의 연구는 배움이 자연 현상과 일상의 경험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호기심에 기초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술가로서 그녀의 미술 연구는 사진, 조각, 설치 미술에 걸쳐 있다. 젠은 그녀의 작품을 싱가포르의 산책로(Esplanade), 국립박물관, 미술관, 예술과학관 등 싱가포르에서 열린 수많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선보였다. 다양한 지역에서 작품 전시를 했으며, 여러 지역의 환경 회의 초청 연사로 초청됐다. 또한 최근 제7회 프랑스+싱가포르 사진예술상 수상자, 2019 IMPART 어워드의 파이널리스트였다.

시각예술교육: 지연의 연속과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세계를 이어주고, 풀어주고, 지속하며, 키워주는 글로벌 맥락

Visual Arts Education/s: Glocal Threads to Connect, Entangle, Sustain and Nourish During a Prolonged Lockdown and Time of Uncertainty.

캐서린 콜먼 (Kathryn Coleman)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마크 셀크리그 (Mark Selkrig)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애비 맥도널드 (Abbey MacDonald) / 호주 태즈매니아 대학교 부교수

코로나19 발생 초기 호주(특히 112일간 봉쇄되었던 멜버른)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각예술계에 있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다. 봉쇄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들로 인하여 접근은 지속적으로 통제되었다.

본 발제는 디지털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이 어떻게 새로운 지평과 다양성을 가져왔는가를 조명한다. 우선, 거시적인 글로벌 맥락에서 세계 전역의 시각예술가 및 예술교육가와 함께 한 8개의 웹세미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장을 제공하는 한편, 창조적인 연대 하에 모두가 행동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중시적인 호주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 그리고 장치가 없이도 가능한 디지털 툴 키트를 개발하기 위해 가정 내 시각예술학습에 있어서 창조적, 비평적 기회의 필요성을 보여준 시각예술교육가들을 살펴본다. 뒤이어 멜버른이라는 미시적/지역적 맥락에서 (지역, 국내외)가정에서 만들어진 작업을 전시해 가족, 교사, 학생들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한 하이데 현대미술관의 사례를 살펴본다. 인력 유지와 같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자, 지역공동체와의 교류, 학습, 참여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시각예술가와 예술교육가 대부분이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오늘날과 같이 불안정한 시기, 우리는 다양한 지식 습득 방식을 통해 시각예술을 비롯한 여러 예술의 형식의 힘을 빌려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채워간다.



캐서린 콜먼 (Kathryn Coleman) / 호주

캐서린 콜먼 박사는 예술, 디지털 공간, 연습, 문화의 교차점에 관심을 둔다. 콜먼 박사의 방식은 교사 실습, 정체성의 실천, 그리고 연습으로서의 지식을 통해 알게 된다.



마크 셀크리그 (Mark Selkrig) / 호주

마크 셀크리그 부교수의 연구 관심사에는 교육자 업무의 본질 변화와 예술과 창의성이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 역량 향상 및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된다.



애비 맥도널드 (Abbey MacDonald) / 호주

애비 맥도널드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위한 작품활동, 지지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업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있다. 애비는 교육 혁신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예술 및 자선단체와 함께 일한다.

BYOB

18:10-19:10

온라인 만남의 광장

온라인 만남의 광장(Bring Your Own Bottle)은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학술대회 주제와 참가자의 관심사에 대해 나누는 네트워킹 세션입니다. 키워드에 따라 온라인 방이 개설되고, 각 방마다 진행자의 사회를 통해 서로를 소개하고 관심사에 대해 나눕니다.

교실 속 예술

한국어

홍유진 (Yujin Hong)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Arts Education or Arts in Education

영어

장웅조 (WoongJo Chang)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부교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한국어

김소연 (So Yeon Kim)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제협력팀 팀장

Arts in Society (Diversity, Inclusiveness, Healing, Engagement)

영어

김인설 (InSul Kim) / 대한민국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예술 치유 및 참여

한국어

박신의 (Shin-Eui Park)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시간			프로그램	주제	발제자
GMT -4 NY(EDT)	GMT	GMT +9 Seoul(KST)			
00:00-00:40	04:00-04:40	13:00-13:40	기조발제 2	예술교육의 과제로서의 "문화적 회복력"과 "미적 회복력" : 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론을 위한 회복 개념에 대한 범위와 한계 모더레이터 타나 클레패키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선임 연구원, 독일)	베냐민 외리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정회원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 독일)
00:40-02:10	04:40-06:25	13:40-15:10	세션 5 : 교실 속의 예술	모더레이터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메리 클레어 키텐다 (케냐 공과대학교 학과장, 케냐) 에밀리 맥밀런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캐나다) 홍지혜 (브리검영 대학교 부교수, 미국) 에밀리 윌슨 (멜버른 대학교 조교수, 호주) / 네릴 지네렛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케냐 대학 학생들의 발산, 완화, 성찰, 그리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미술 치료 사용	
				포용적 실천을 위한 인형극의 마술 같은 힘	
				음악 교실에서 다양성과 문화적 대의의 필요성: 실용적인 전략과 그 실행	
02:10-03:40	06:25-07:55	15:10-16:40	세션 6 : 예술 참여	모더레이터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레베카 칸 (난양 예술 아카데미 부총장, 싱가포르) 푸 세이 밍 (난양 예술 아카데미 학장, 싱가포르) 탄 쟁 수안 (난양 예술 아카데미 조교, 싱가포르)
				서비스러닝의 내러티브: 난양 예술 아카데미 사례 연구	
				온라인 관람 시대에 참여와 공유를 실천하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팬데믹 이후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예술교육가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가	
			세션 7 : 다양성&문화적 대의	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와 2020년 위기 속 예술교육의 혁신	정혜연 (홍익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성효진 (홍익대학교 석사과정생 / 국제 갤러리 전시팀, 대한민국)
				모더레이터 치후 림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제현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대한민국)
				위기 속의 예술: 불평등 사례	제프 풀린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전무이사, 미국)
				LGBTQ의 역사를 옹호하는 박물관들	루스 램츨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교수, 호주)
03:40-05:25	07:55-09:10	16:40-18:25	세션 8 : 현장사례연구 2	남한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의 공존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미술 프로젝트의 현상학적 연구	김유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대한민국) / 박소정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대한민국)
				조용한 무대: 캐나다 엘 시스템아(El Sistema)가 코로나에 응답하다	손 코르코란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캐나다) / 벤저민 볼든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모더레이터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장수혜 (책누나프로젝트 대표, 대한민국)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책누나프로젝트의 기후위기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공윤지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사, 대한민국)
				뉴 노멀 청소년에게 그림책으로 질문던지기	이현정 (지아정원 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대한민국)
				아이 코브 유	배성중 (예술 강사, 대한민국)
05:25-06:25	09:10-10:10	18:25-19:25	폐회세션	위기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교육 장르 소개	최영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교육팀 팀장, 대한민국)
				과도기를 이어주다: 예술교육이 성인으로 가기 전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는가	
			모더레이터 장웅조 (홍익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토론자 박신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대한민국) /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대한민국) / 에밀리 아이칭 아쿠노 (케냐 공과대학교 교수, 케냐)	홍유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대한민국) / 쉬프라 손만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이스라엘) / 렐프 벅 (오를랜드 대학교 학과장, 뉴질랜드)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대한민국) / 보와 령 (홍콩 교육 대학교 교수, 홍콩)

기조발제 2

13:00-13:40

예술교육의 과제로서의 “문화적 회복력”과 “미적 회복력” : 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론을 위한 회복 개념에 대한 범위와 한계

문화예술교육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능력과 창조적으로 대안적 시각을 정립하는 힘은
세계가 회복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
회복에 기여하는 방안을 그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모색합니다.

발제자

베나민 외리센 (Benjamin Jörissen)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정회원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
교육 체어 의장

모더레이터

타냐 클레팩키 (Tanja Klepacki) /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
교육 체어 선임 연구원

예술교육의 과제로서의 "문화적 회복력"과 "미적 회복력"

: 문화적 지속가능성 교육론을 위한 회복 개념에 대한 범위와 한계
"Cultural Resilience" and "Aesthetic Resilience" as a Task of Arts Education?
: Scope and Limits of the Resilience Concept for a Pedagogy of Cultural
Sustainability

베나민 외리센 (Benjamin Jörissen)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정회원 /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

회복력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추구하고 되는 능력으로, 개인, 공동체, 국가, 심지어 인류세 이후 인류의 회복력 또한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심리학, 교육, 사회학, 경제학, 자연과학(예: 지리, 생태, 생물학)과 기술과학(예: 건축, 컴퓨터 공학,
재료 과학)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회복력은 개인, 단체(예: 커뮤니티)와 전체 시스템(예: 사회)과도 연결될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회복력이 개별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집단 학습 과정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형태의 학습 과정과 접목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회복력의 개념이 한 사회가 경제, 생태, 문화적인 차원에서 여러 변화에 노출되는 시기에 특히 중요하게 자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변화라는 목표와 같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학습 과정을 구축하고 형성하는
것이 개별적 교육 개념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 여기에 문화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냐는 문제에 대해, 본 연구는
광범위하게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문화적 회복력”과 “미적 회복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발표는 문화예술교육이 회복력 형성에 미치는 특정적 영향은 문화예술교육의 고유한 잠재력이 펼쳐지는 곳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한 편으로는 문화유산과 다면적이고 집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활발한 미적, 예술적 감각으로 현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하고 대안적인 세계관이 혁신과 기회를
위한 공간으로 안내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평가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Brown, 2015, p. 117) 대안적 관점과
세계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은 회복력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베나민 외리센 (Benjamin Jörissen) / 독일

베나민은 문화와 미학을 중점으로 교육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
뉘른베르크 대학교에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을 맡고 있다. 또한 베나민은 유럽 과학 예술
아카데미와 독일 예술 문화 교육 협회의 회원이다. 그의 연구는 특히 유네스코와 관련된 문제들과
포스트 디지털 문화에서의 교육의 변혁과 관련하여, 교육 이론과 문화, 예술, 미학 교육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나민은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메타 프로젝트
“예술과 문화 교육의 디지털화”와 같은 예술교육의 디지털화에 관한 몇 가지 주요 경험적 연구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최근 출판된 책과 향후 출판될 책은 『변환 스펙트럼: 예술교육연구와
문화역학(2018), 『문화교육의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2019)』 (공저), 『변혁의 미학: 예술교육연구와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도전』 (공저) 등이 있다.

모더레이터

타냐 클레팩키 (Tanja Klepacki) /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선임 연구원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선임 연구원이며 뉘른베르크에 있는 학교연극 및 연극교육학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 주요 분야는 문화 및 미학 교육 이론 및 실증 연구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상호 심사, 오픈 액세스 기반의 『문화, 미학, 예술교육 분야의 국제 연구 저널』을 이끌고 있다.

토론자

글로리아 자파타 (Gloria P. Zapata) / 콜롬비아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에른스트 바그너 (Ernst Wagner) / 독일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세션 5

13:40-15:10

교실 속의 예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기에 놓인 학교 및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통해 회복되고, 다양한 예술 분과 교육들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모더레이터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부교수,

발제자

메리 클레어 키덴다 (Mary Clare Kidenda) / 케냐

케냐 공과대학교 학과장

에밀리 맥밀런 (Emily MacMilla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홍지혜 (Jihea Hong-Park) /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

에밀리 윌슨 (Emily Wilson) / 호주

멜버른 대학교 조교수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모더레이터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부교수



음악 교육자이자 작곡가이며, 캐나다 퀸스 대학교 교육학부의 부교수이자 유네스코 예술 및 학습 위원장이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예술교육, 음악교육, 작곡의 교육과 학습, 창의성, 예술 기반 연구, 사범교육, 교사 지식, 교사의 전문 학습이다. 그의 연구는 교육 리뷰, 교육과 교사 교육 저널, 음악 교육 연구 저널, 음악 교육가 저널을 포함한 저널에 발간되었다. 벤은 교사로서 캐나다, 영국, 대만의 중등 학생, 대학생들과 함께 일해왔다. 벤은 캐나다 음악 센터(CMC)의 부 작곡가이며, 그의 작품들은 다양한 프로와 아마추어 공연 앙상블에 의해 연주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케냐 대학 학생들의 발산, 완화, 성찰, 그리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미술 치료 사용

The use of Art therapy to facilitate the release, relief, reflection and restoration of students in Kenyan Univers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메리 클레어 키덴다 (Mary Clare Kidenda) / 케냐

케냐 공과대학교 학과장

케냐에서는 인간의 권리로서 기초교육을 보장한다. 헌법 제41조에 “케냐의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코로나는 전세계, 특히 케냐의 교육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학생, 교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계속되는 휴교, 자택 격리와 효과적이고 접근성 높은 비대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케냐의 상황이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팬데믹 시대 만연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켜줄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각예술치료를 위한 창의성, 재해석, 혁신의 시급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본 논문은 2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의 여파와 그를 극복하기 위해 케냐 교육계에서 시각예술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학생들의 대응을 돕는 창조적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한다. 시각예술치료는 희망을 심어주고, 표현을 독려하며 영감을 준다. 대면 환경, 온라인 환경 모두에서 시각적 요소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창의적 재능을 발견하고 각자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소통하는 치유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학생들은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통제권을 회복한다. 그림, 조각, 세라믹, 섬유 작업을 배우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성취감이 긍정적인 자세를 키워줄 수 있다. 케냐 교육 기관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응해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매체로서 시각예술의 활용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케냐 공과대학교의 사례 연구를 살펴본다.



메리 클레어 키덴다 (Mary Clare Kidenda) / 케냐

영국 코번트리 대학교에서 디자인 및 시각 예술 박사학위를, 나이로비 대학교에서 디자인 예술 석사학위를 받았고, 케냐타 대학교에서 예술교육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상원 의원, 학교 교무 위원회 그리고 현재 케냐 공과대학교의 디자인 및 창조 미디어 학부, 창조 예술 학교 및 미디어 기술 학부의 팀장이다. 메리는 위 부서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으며, 전국의 여러 예술 디자인 부서를 설립하고 이끌고 있다. 케냐 디자인 협회(DeSK)와 아프리카 연구 예술 위원회(ACASA)의 회원이자 시각 문화 탐구 전문가 패널의 회원이며 『아프리카의 시각 문화』라는 책의 편집장이다.

포용적 실천을 위한 인형극의 마술 같은 힘

The Magic within Puppetry for Inclusive Practices

에밀리 맥밀런 (Emily MacMilla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석사과정생

현재 실습생으로서, 장애를 가진 교내 학생들을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보았다. 보조 교사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잠재력 개발과 학업적 성취를 돕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실 또는 운동장에서 진정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교사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도, 쉬는 시간 말 걸어줄 친구를 간절히 바란다. 그들이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것은 한 명의 일원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참된 우정을 쌓는 것이다. 본 발제에서는, 인형극을 통해 어떻게 학우들 간의 포용력을 키우고, 비장애 학생과 발달 장애 학생 간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지를 공유해 보고자 한다. 현재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인형 만들기와 인형을 통한 의사소통이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인형극 시연을 통해 워크숍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참석자들을 초청해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활동을 통해 인형극의 마술 같은 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가상 교실을 포함한 오늘날의 가상 플랫폼에서 인형극을 통해 포용력을 높이는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매일매일 친구들과 너무도 어울리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만나지만, 음소거 해제 버튼, 불안정한 인터넷, 사회적 거리 등이 이를 더 어렵게 만든다. 화면을 넘어 인형극을 확장시키는 방법과 모든 학생들과 공동체를 위한 포용과 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 초등 교사들을 위해 만든 워크숍 프로그램은 비장애 학생들과 발달 장애 학생들 간의 진정한 우정과 포용성을 키워주는데 있어 인형극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에밀리 맥밀런 (Emily MacMillan) / 캐나다

에밀리는 퀸스 대학교의 단 연극 음악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 퀸스 대학교 교육학 석사과정 1학년생이며,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가르쳐 본 실습생이다. 에밀리의 연구에는 인형극 예술이 교실 내 포용성을 키우는데 어떻게 기초가 될 수 있는지, 특히 신경이 예민한 학생과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 사이에서 진정한 우정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교육자를 위한 워크숍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인형극이 화면을 넘어서 확장될 수 있고, 플랫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포용성과 교실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워크숍은 온라인이나 대면 수업으로 직접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에밀리의 프레젠테이션에는 '포용적 실천을 위한 인형극의 마술 같은 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며, 이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한 관객들 각자가 이 마법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란다.

음악 교실에서 다양성과 문화적 대의의 필요성:

실용적인 전략과 그 실행

The Necessity of Cultural Representation in Music Classrooms: Practical Strategies and Their Implementation

홍지혜 (Jihe Hong-Park) /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 부교수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아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세계의 시민이자 작가이자 교육자로서 우리는 작업을 통해 이 시대를 대변할 책임이 있다. 최근 몇 년이 되어서야 사회적 다양성, 평등, 포용성을 이해하고 다루는 중요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래 음악 관객을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포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다양성과 문화적 대의이라는 개념을 교실과 공연장에서 선보일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야만 한다.

본 논문이 탐구하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음악이 어떻게 상호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가? 점차 심화되는 사회적 다양성과 평등의 문제에 대해 음악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영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창조적인 대처 방안을 촉진, 뒷받침할 수 있는가? 왜 다양성과 문화적 대의가 21세기 예술교육에서 핵심적인 요소인가? 다양한 학제를 아우를 수 있는 실천 전략, 접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뉴욕필하모닉의 전 예술교육실천가이자 15년간 활동한 뉴욕 공립학교 교사, 그리고 현재 음악 고등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술교육 안에서 문화적 대의의 힘과 필요성을 목격해왔다. 본 논문 발제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비롯해 각종 문헌, 자료, 전문가 인터뷰를 공유하고자 한다.



홍지혜 (Jihe Hong-Park) / 미국

현재 미국 전역과 세계 곳곳에서 연주자, 교육자, 그리고 티칭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뉴욕 카네기홀의 와일 리사이틀홀과 젠켈홀, 링컨센터, 머킨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일본 도쿄 음대, 코메 에콜마 홀, 그리고 한국의 인천 예술문화센터 등지에서 연주를 하였다. 현재 미국 브리검 영 대학 피아노과 부교수로 교직 중이며 이전 줄리아드 음대 야간 학부 교수진과 뉴욕 필하모닉 수석 티칭 아티스트를 역임하였다. 그녀는 국제예술교육실천가대회 (ITAC5), 대학 음악 협회 콘퍼런스, 성 루크 청소년 오케스트라, 뉴욕시 교육청 등에서 학회 발표를 하였으며 올여름에는 2021 건반교육학 컨퍼런스에서 강연 초대를 받았다.

2020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디지털 예술로 협업하기

Facilitating Student Voice and Collaboration with Digital Arts in 2020

에밀리 윌슨 (Emily Wilson) / 호주 멜버른 대학교 조교수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온라인 학습 및 교육으로의 전환은 여러 어려움을 야기했지만, 예술교육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결과를 제공하기도 했다. 디지털 음악 기술 도구를 사용한 창작은, 최근 몇 년 동안 학교에서 인기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기간 동안 학생들을 연결하고 협업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사, 아동, 예술'은 멀티미디어를 통해 아동의 이야기 창작에 초점을 두는 학부 과목 중 하나이다. 우리가 늘 가르치던 방식의 대면 실기지도와 아트 스튜디오 활용이 어려워졌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행 방식이 디지털화되었다. 본 연구는 음악 교육자로서 수행한 자체 협력 연구 프로젝트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구상되었다. 우리는 디지털 요소를 사용하여 어떻게 창의성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나? 우리는 다양한 학과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 통합 예술 과목에서 동시적, 혹은 비동시적 활동을 통해 발전된 팀 티칭방식의 예술교육, 그 중에서도 음악수업을 진행한 2020년도의 경험을 살펴본다. 음악 수업의 결과물로 제작된 사운드트랙과 더불어 학생들이 보여준 열정과 순수한 기쁨은 주목할 만했다. 우리는 학생들의 목소리와 결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디지털 음악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비전문 음악가들도 긍정적인 결과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밀리 윌슨 (Emily Wilson) / 호주

에밀리 윌슨은 멜버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음악 교육 조교수다. 그녀의 연구 관심사로는 음악 교육 교육학, 학생 참여, 비공식 및 공식 음악 학습의 융합, 일대일 음악 교육학 등이 있다.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 호주

네릴 지네렛은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의 간사이자 멜버른 교육대학원(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의 유네스코 예술 연구소 공동 책임자이다.

세션 6

15:10-16:40

예술 참여

예술교육이 오늘날의 위기에 대항하여 지역 사회가 창조적으로 대응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모더레이터

신혜선 (Hyesun Shin) / 대한민국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발제자

레베카 칸 (Rebecca Kan) / 싱가포르

난양 순수 예술 아카데미 부총장

푸 세이 밉 (Foo Say Ming) / 싱가포르

난양 순수 예술 아카데미 학장

탄 쟁 수안 (Tan Jeng Suan) / 싱가포르

난양 순수 예술 아카데미 조교

정혜연 (Hyeyoun Chung)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조교수

성호진 (Hyojin Sung)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석사과정생 / 국제 갤러리 전시팀

제한정 (Hwan Jung Jae) / 대한민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제프 폴린 (Jeff Poulin) / 미국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전무이사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모더레이터

신혜선 (Hyesun Shin) / 대한민국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현재 위컬쳐 리서치&컨설팅의 대표이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사로 활동 중이다. 문화예술교육, 국제문화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을 중심으로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문화정책·예술경영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우리 삶 속의 예술과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 그리고 사회 간 관계에 어떠한 기여와 영향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있다.

서비스러닝의 네러티브: 난양 예술 아카데미 사례 연구

Narratives of Service Learning: a Case Study at Nanyang Academy of Fine Arts

레베카 칸 (Rebecca Kan) / 싱가포르 난양 예술 아카데미 부총장

푸 세이 밉 (Foo Say Ming) / 싱가포르 난양 예술 아카데미 학장

탄 쟁 수안 (Tan Jeng Suan) / 싱가포르 난양 예술 아카데미 조교

실험적 교육의 한 형태로서 봉사 학습은 교육과정과 봉사 활동을 결합시킨다(프레라도비치, 2015). 이 연구는 고등 음악 교육 학생이자 전문 음악가들의 봉사학습을 연구하고자 이들의 스튜디오 밖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살펴본다. Kaye(2004)의 탐구, 준비, 활동, 성찰, 시연 모델은 싱가포르 난양 예술 아카데미와 코타키나발루 사바의 제설턴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동프로젝트를 통해 운영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상호 파트너십이 토착 커뮤니티들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는 예술 기반의 경험 학습을 제안한다(버턴과 레이놀즈, 2009). 사전 및 사후 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와 학생들의 성찰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파트너십이 성찰적 활동, 연구 습관, 열린 대화를 통한 호혜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 악기 수업, 국가간 공동체 협업, 비공식 교육 등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다룬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서 개인적인 기량의 성장,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강화,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경험했음이 나타났다. 수혜를 주고, 받은 양자 모두 취한 것이 있었지만, 봉사학습 참여를 통해 봉사과 환원, 음악에 대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예술직업을 통한 배움에 대해 공동체로 하여금 숙고하도록 하는 효과는 매우 분명했다. 예술과 전문 학습에서의 성장, 공동체 환원, 포스트 팬데믹 시대 사회적, 문화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구성 등 특정 분야를 위한 봉사학습 틀의 개발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레베카 칸 (Rebecca Kan) / 싱가포르

예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열정적이며, 특히 전문 교육과 시그니처 교육학, 그리고 이 분야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것에 열정적이다. 교육연구부 차장 자격으로 고등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 연구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주도하며, 음악학교 수석 강사,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SUSS)에서 겸임 강사 등을 맡아 성인 학습자들과 함께 음악적 이정표를 감상하는 예술을 준비한다.



푸 세이 밉 (Foo Say Ming) / 싱가포르

싱가포르 음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싱가포르 교향악단에서 제1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한 것과 별개로, 영국 런던 왕립음악대학(RCM)과 함께 음악공연과 음악교육 학위 과정을 개설한 난양 예술 아카데미에서 현악학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탄 쟁 수안 (Tan Jeng Suan) / 싱가포르

난양 예술 아카데미 피아노 연주과 4학년으로, 현재 폴 랑 박사의 지도 아래, 학교 콘서트에서 솔리스트이자 실내악가로 공연을 해왔다. 학생 연구 조교로서 교육학 연구부, 학술 사무소와 함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전통 음악 시스템에 대한 보완적 학습 방법으로 사회 문화 학습의 가능성을 탐구하려고 하며, 다른 연구 관심사는 영유아를 위한 음악교육이다.

온라인 관람 시대에 참여와 공유를 실천하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혜연 (Hyeyoun Chung)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조교수

성효진 (Hyojin Sung)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석사과정생 / 국제 갤러리 전시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전 세계의 대부분의 박물관/미술관이 물리적 접근 불가 혹은 제한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박물관/미술관은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많은 전시를 온라인으로 개관하였다. 결과 중대형 박물관/미술관의 온라인 방문객은 과거보다 5배 이상, 루브르 박물관의 경우는 하루 온라인 접속자가 과거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였다(Grant, 2020).

최근 급속히 만들어진 온라인 콘텐츠 중에는 과거의 전시 혹은 명화를 큐레이터가 설명하는 대로 관람객에게 지식적 흡수를 유도하거나, 일차적이고 감각적 반응만을 유도하는 것도 많다. 박물관의 유물, 특히 예술 작품에 대한 온라인 교육 활동은 작품의 아우라를 전달하지 못하고, 온라인 방송화는 참여와 공유의 정도에서도 단순히 “해시태그”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같은 즉각적 반응에 그치기도 한다. 온라인 교육 활동은 오프라인 교육 활동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박물관/미술관 활동 참여자를 관심과 현 상황에 대해 변화 가능한 집단으로 인식해야 하고 그들의 삶에서의 의미를 만드는 활동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박물관/미술관 이용자들이 박물관과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것을 이해하고 소통의 수단과 기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관람객이 창조해내는 소장품의 다양한 관점의 내러티브적 해석이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지역사회 혹은 작은 규모의 집단으로 공유되어야 한다(Harris and McGiven, 2020). 이러한 공유와 참여의 성격은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내부자가 참여적 문화 기관임을 인지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이 자신의 의미를 만들고 그 생각을 공유하고 연결되는 온라인 활동은 설계해야만 가능하다.

본 발표는 2020년 2학기 H 대학교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연구 2의 수업에서 예비 박물관/미술관 교육자가 미술관의 과거 혹은 현재 전시를 온라인 교육 활동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기반으로 한다. 박물관/미술관 교육 연구 2 수업의 이론적 기반과 사례 연구를 통해, (예비/현직)박물관/미술관 교육자인 수업참여자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가 소개될 것이다. 참여적 성격의 박물관/미술관의 온라인 교육활동 설계의 기반과 실제 설계 과정이 설명될 것이다.



정혜연 (Hyeyoun Chung) / 대한민국

본 발표의 자료인 박물관/미술관 교육연구 1, 2 담당 교수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교수이다. 홍익대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교 예술경영학 석사, 미술교육학 박사(미술관 교육 세부 전공)이다. 박물관/미술관 자문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하고 있다.



성효진 (Hyojin Sung) / 대한민국

박물관/미술관 교육연구 2 참여자로 서강대학교 영문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미술관교육팀 서포터즈로 참여한 바 있으며,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을 거쳐 현재 국제갤러리 전시팀에 근무 중이다. 옥션과 상업화랑, 그리고 미술관 교육팀까지 다양한 분야에 속하며 대중의 예술 참여활동에 대한 활발한 연구 중에 있다.

팬데믹 이후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예술교육가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가

제한정 (Hwan Jung Jae) / 대한민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팬데믹이 시작된 후,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역시 집합과 대면의 제한을 받으며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예술교육의 창작과 향유의 과정에서 접촉과 집합은 주요한 선제조건이었으나, 이러한 급격한 전환은 예술교육자에게 물리적인 제약은 물론, 미학적, 교육적, 윤리적인 측면에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발제는 온라인 예술교육이 어떻게 예술교육가의 활동과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가를 탐색해보며, 아래의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예술교육가들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예술교육활동의 현장성(Liveness)을 재구성하는가.

둘째, 온라인의 전환에서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 고안된 물성(키트 등)은 예술교육자의 소통방식과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셋째,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의 지향가치들이 재고되는 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제한정 (Hwan Jung Jae) / 대한민국

“모든 인간은 무용수”라는 믿음으로 춤과 춤추는 인간을 독려하고 탐구하며, 세상 구석구석 예술이 있기를 도모하고 있다. 예술교육자, 창작자, 저자로 학교, 병원, 무용단 등 춤이 필요한 곳에서 활동 중이다. 템플 대학교에서 무용 박사학위를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와 2020년 위기 속 예술교육의 혁신

The Creative Generation and Arts Education Innovations through the Crises of 2020

제프 풀린 (Jeff Poulin) / 미국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전무이사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변화에 주목한 젊은 세대들의 예술기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록했다. '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로 불리는 이 젊은 크리에이터들은 전례 없는 난관이 산적했던 2020년, 각종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각각 3월(5, 7월)과 11월에 진행된 두 연구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경제 침체 그리고 흑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이 촉발시킨 시위와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청년 창작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의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경험한 급진적 변화와 전략적 혁신을 다룬다. 본 논문은 '창의 세대'의 언어를 통해 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속 혁신을 위한 8개의 경로를 제시한다. 공동체 발전과 사회 통합이라는 목표, 그리고 청년에 초점을 맞춰 각 기관들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도출하기 위해 미래 교육적 접근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와 사회성에 주목해 젊은 세대의 창조적 힘을 키우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공하고, 2020년 미국에서 일어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예술교육계의 대응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미래의 위기들에 대비하기 위한 문화예술의 미래 시나리오를 탐구한다.



제프 풀린 (Jeff Poulin) / 미국

제프 풀린은 미국의 교육자이자, 사회적 기업가, 비영리사업 행정가이다. 전 지구적 과제들을 위해 사회 정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019년, 젊은 크리에이터들의 사회 변혁 활동과 그들을 지원해주는 이들을 위해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Creative Generation)을 설립, 이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상호 연결을 도움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힘쓰고 있다.

퍼포먼스 예술가, 예술교육실천가, 교육 연구가, 정책 및 예술 행정가로 10년 이상 활동한 풀린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예술교육연맹/유네스코, 라이브네이션(LiveNation), 미국 아트플레이스(ArtPlace America), 예술을 위한 미국인 연합(Americans for the Arts), 아일랜드 교육부, 정치 캠페인, 각종재단, 지역 비영리기관 등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문화 정책 및 교육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분야의 선구자로서, 풀린은 집필, 지원 사업 심사, 연구 패널로도 활동한다. 세계청년포럼(World Youth Forum), 세계문화예술포럼(World Summit on Arts & Culture), 미국 교육부, 미국 교육 연구 연합(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300개 이상의 예술교육 모임 등에서 연사로 초청받았다.

풀린은 메인주의 포틀랜드 출신인 풀린은 오클라호마 주립 대학교, 더블린 대학교,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예술 경영, 문화 정책, 교육으로 학위를 수여했다.

세션 7

15:10-16:40

다양성&문화적 대의

예술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주체들을 드러내고 이들의 목소리를 발굴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를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이루는 과정을 모색합니다.

모더레이터

치후 림 (Chee-Hoo Lum)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발제자

루스 렌츠러 (Ruth Rentschler) /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교수

심지영 (Ji-young Shim)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조교수

김유리 (Yuri Kim) /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박소정 (Sojung Park) /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손 코르코란 (Sean Corcora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부교수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모더레이터

치후 럼 (Chee-Hoo Lum) /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국립교육원 영상공연학그룹(NIE)의 음악교육학과 부교수이자 동대학 교육예술연구센터(CARE)의 코디네이터이며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의 회원이다. 치후의 연구 관심사는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및 다문화주의, 음악 교육에서의 기술과 세계화, 아이들의 음악 문화, 창의성과 즉흥성, 그리고 초등 음악 방법 등이다. 그는 현재 음악교육연구저널(JRME), 음악교육연구조사(RSME), 영유아를 위한 국제음악저널(IJMEC)의 편집위원이다.

위기 속의 예술: 불평등 사례

Arts in Time of Crisis: The Case of Inequality

루스 렌츠러 (Ruth Rentschler) /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교수

소외된 집단을 대변하기 위해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창조 산업이 약화되고, 소외 집단에 대한 인식과 지역 사회에 있어서 이들이 행하는 예술적 기여가 훼손되었다. 중국이 코로나의 진원지라는 인식으로 인해 고통받는 중국계 호주인들, 지속적인 봉쇄로 인해 여러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 예술인들, 직업이 사라져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등 무수히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술계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프로젝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위태로운 고용 상태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더 악화되었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에서 이들이 커리어를 쌓는 것의 시급함과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문화장관위원회(Cultural Minister's Council)와 같은 기관의 장애 예술인을 위한 우선순위를 가진다. '경로의 구축: 장애 예술인 통찰(오스트레일리아 연방 2018, p2)'에서 이들 장애 예술인들은 그들의 '특별한 관점과 삶의 경험'을 통해 '강력한 표현, 창조성, 스토리텔링'을 제공하는 '호주 문화예술의 중요한 기여자'들로 규정된다. 그러나 호주예술위원회 예술 예산 중 이들을 위해 배정된 것은 1%도 되지 않는다. 이는 정책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이들 받는 대우를 여실히 보여준다. 본 프로젝트는 개인 역량에 맞춰 장애 예술인들이 급변하는 미래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대비하는 대면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한다. 미래 사회에서 예술은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되며 이를 위한 예술 커리어를 고민해야 한다. 대학 내 학자, 장애와 예술을 다루는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위기의 시대 장애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루스 렌츠러 (Ruth Rentschler) /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경영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예술과 문화의 맥락에서 경영학자, 연구자로서 국제적 인지도를 발전시키면서 우수한 국내 및 국제 보조금, 우수한 저널 출판물, 그리고 국내외 연구팀을 이끌면서 연구 우수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다.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 댄스 시어터 현대 무용단의 이사회 부의장이자 장애 연극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부총장상, 최우수 박사 슈퍼바이저 상, 커팅 레드 테이프상과 교육, 예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호주 훈장 등 다양한 영예와 상을 받았다.

LGBTQ의 역사를 옹호하는 박물관들

심지영 (Ji-young Shim)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조교수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stioning or Queer) 커뮤니티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새로운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진보적인 LGBTQ 예술가들과 단체들은 기업가를 향해 그들의 권리와 신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LGBTQ의 역사는 다양한 개인과 문화의 권력과 투쟁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제도권'의 국내 박물관과 미술계는 현재까지 LGBTQ 문제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적인 사안보다 논란이 많은 이슈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뿌리 깊은 이데올로기의 사례들의 경우엔 더욱더 그렇다. 본 연구는 주류 관람객에게만 어필하는 안전하고 '잘 만들어진' 전시를 지양함으로써 미국의 주류 미술관이 LGBTQ를 주제로 한 전시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고, LGBTQ 이슈와 관련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장소에서만 특정 논란이 되어온 미술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한다. 소개되는 사건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학자와 대중 사이에서 전시 자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종교와 정치적 실체, 통제를 둘러싼 논의를 점차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바 있다. 미술관이 화제의 전시를 개최하면서 직면했던 주요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재개념화된 미술관의 역할과 교육학적 논쟁과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제도권 미술계가 창의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위치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를 통해 투박하거나 어설픈 방법으로 다른 문화권 사이에 존재하는 민감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지양하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대중을 이해시키고 교육할만한 관점이 있음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제시한다.



심지영 (Ji-young Shim) / 대한민국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미술교육학회, 한국문화교육학회, 한국관광학회(외식분과) 등의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학사·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내외에서 수석 큐레이터, 문화예술교육자로 활동하였고 주요 분야로는 박물관·미술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지역적 요인에 따른 논쟁적 예술 및 전시와 소통전략, 소외 계층을 위한 예술과 교육의 통합적 접근법 등 다양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남한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의 공존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미술 프로젝트의 현상학적 연구

김유리 (Yuri Kim) /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박소정 (Sojung Park) /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나(I), 너(Thou), 그리고 우리(We)는 동등한 대화 안에서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이며, 각각의 진실된 실존을 위해 공존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타인과의 공존은 도전이 따르며, 특히 서로의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공존은 어려워지게 된다. 우리는 '공존'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이 국내외적으로 시급한 이 시기에, 역사적,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남한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이 지역사회 기반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공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지, 그 현상을 치유적 관점에서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은 남한 청소년 2명과 탈북 청소년 6명이며, 이들은 한 학기 동안 방과 후 프로그램 수업에서 진행된 '마을 만들기'라는 상징적인 공동 미술 작업을 함께 완성하였다. 그 결과, 참여 학생들의 경험은 3개의 현상을 담은 상위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익숙한 나를 새롭게 바라봄,' '나를 정의함으로 타인을 이해함,' '조율과 타협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감'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학회에 참여하는, 인류의 공존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공유하는 예술가와 티칭 아티스트, 미술치료사 및 그와 연결된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1) 미술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공존을 이루어가는 생생한 사례를 제공하고, (2) 공동체 속 인간의 실존을 위한 예술의 치유적 역할에 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3) 실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동체의 의미와 공존을 돕는 예술가의 행동에 관해 토론할 것이다.



김유리 (Yuri Kim) /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융합미술치료학 전공 박사과정생으로 10년 이상의 아동 미술 교육 경력이 있다. 예술교육가로 활동하다가 예술의 치유적 힘에 대한 믿음으로 미술치료사가 되었다. 미술치료 활동 분야로는, 남한 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의 공존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젝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치유 프로젝트 등이 있다.



박소정 (Sojung Park) / 대한민국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치료교육전공의 조교수로, 조형예술대학 박사과정 융합미술치료학 전공의 겸임교원으로도 재직 중이다. 박소정 교수는 미국미술치료학회 공인미술치료사이자 미국 뉴욕 주정부 공인 예술치료사이며, 미국의 스킵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미술치료 석사학위를, 레슬리 대학교에서 표현예술치료로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조용한 무대: 캐나다 엘 시스테마(El Sistema)가 코로나에 응답하다

Silent Stages: Canadian El Sistema Program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손 코르코란 (Sean Corcora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퀸스 대학교 부교수

지난 10년 동안 엘 시스테마와 엘 시스테마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음악 교육 및 사회적 복지 이니셔티브로 점차 확장되었다(Corcoran, 2021; Govias, 2014; Morin, 2014). 프로그램의 지지자들은 사회적, 정서적 성장(Alemán et al., 2017), 공동체 형성 및 소속감 증대(Merati et al., 2019), 학문적, 인지적 성장(Habibi et al., 2017)을 나타내는 연구를 주로 인용하곤 한다. 초기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는 특히 사회적, 경제적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비대면 학습 환경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UNESCO, 2020).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 또한 취약 계층의 참여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대면으로 음악 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Shaw, 2020).

본 연구는 캐나다 엘 시스테마와 엘 시스테마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팬데믹에 대응하며 적응했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요구에 얼마만큼 교육자들이 효과적으로 부응한다고 느꼈는지 회고해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구상되었다: 팬데믹은 엘 시스테마의 프로그래밍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해당 질문에 대한 논의는 정성적 다중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 본 12개의 엘 시스테마와 엘 시스테마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진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각 프로그램에 소속된 한 명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24건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집되었다.

자료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주요 화두는 변화하는 음악 교육법, 사회적 커리큘럼의 중요성, 공동체 형성의 재개념화, 반인종차별주의 등이 있다. 또한 팬데믹은 캐나다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들의 조직적 재편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서구 중심의 음악을 사회변화의 수단으로 삼은 엘 시스테마의 역사적 교육 방법의 맥락 안에서 논의된 반인종차별주의와 탈식민화와 같은 주제는 식민주의, 백인 및 서구 우월주의, 음악적 “우수성”에 대한 어려운 논의를 촉발시켰다.

개요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엘 시스테마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은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본 연구는 캐나다의 엘 시스테마 프로그램이 팬데믹에 대응하며 적응한 사례를 프로그램의 교사와 관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탐구한다.



손 코르코란 (Sean Corcoran) / 캐나다

손은 퀸스 대학교 박사과정생으로 즉흥 연주와 음악교육, 모든 학생이 의미 있는 예술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창출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예술가로서 손은 연결의 본질을 탐구하며 여기에는 연주자들, 관객들, 그리고 배경이 있다. 최근, 손은 알론조 킹 라인스 발레(Alonzo King's LINES Ballet)과 라인스 발레(LINES Ballet), 리도 피미엔타와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 캐나다

음악 교육자이자 작곡가이며, 캐나다 퀸스 대학교 교육학부의 부교수이자 유네스코 예술 및 학습 위원장이다. 그의 연구 관심사는 예술교육, 음악교육, 작곡의 교육과 학습, 창의성, 예술 기반 연구, 사범교육, 교사 지식, 교사의 전문 학습이다. 그의 연구는 교육 리뷰, 교육과 교사 교육 저널, 음악 교육 연구 저널, 음악 교육가 저널을 포함한 저널에 발간되었다. 벤은 교사로서 캐나다, 영국, 대만의 중등 학생, 대학생들과 함께 일해왔다. 벤은 캐나다 음악 센터(CMC)의 부 작곡가이며, 그의 작품들은 다양한 프로와 아마추어 공연 앙상블에 의해 연주되었다.

세션 8

16:40-18:25

현장사례연구 2

한국 문화예술교육 실천가·교육가·기관별 사례를 통해 예술교육의 위기를 창조적으로 돌파하는 방법과 사회 위기 해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모더레이터

홍유진 (Yujin Hong)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발제자

장수혜 (Soohye Jang) / 대한민국
책누나프로젝트 대표

공윤지 (Yunji Gong) / 대한민국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사

이현정 (Hyunjung Lee) / 대한민국
지아정원 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배성종 (Sungjong Bae) / 대한민국
예술 강사

최영희 (Younghee Choi)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교육팀 팀장

모더레이터

홍유진 (Yujin Hong)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KACES)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및 조사분석, 정책 및 기관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문화사회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육기반본부장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연수,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며,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단TF 팀장을 겸하고 있다.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책누나프로젝트의 기후위기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장수혜 (Soohye Jang) / 대한민국

책누나프로젝트 대표

코로나로 인해 빈민 계층이 위협에 처하면서 현 교육 체계의 맹점이 드러났다. 특히,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사회적 문화예술교육이 난항을 겪고 기후변화, 다양성, 평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주제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자원과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 시대 수업 준비 과정에 주목해 비대면 사회적 문화예술교육의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고찰한다. 비영리 예술 독서 교육 단체인 책누나프로젝트와 서울의 사회복지관 및 학교 세 곳이 협업하여 연구를 지원했다. 문헌 조사, 자료 조사,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준비 과정에 대한 예술교육실천가, 예술 행정가, 정치 입안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장수혜 (Soohye Jang) / 대한민국

팬데믹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며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관점에서 실천하는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과제를 살펴보고 그 실천의 사례로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으로 수업을 운영 중인 비영리 예술·독서교육 기관, 책누나프로젝트의 '기후위기'에 대한 수업과정을 분석한다. 포괄적인 문헌검토, 수업기록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향후 비교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뉴 노멀 청소년에게 그림책으로 질문 던지기

공윤지 (Yunji Gong) / 대한민국

프리랜서 문화예술교육사

모든 것이 멈춘 시대에도 청소년들은 자라며,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줄 사람이 필요하다. 예술교육은 질문하고 성찰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준다. 청소년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성찰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에 예술교육은 매우 유익한 교육이다. 그림책이라는 매체는 복잡한 질문들을 글과 그림으로 함축하여 이야기를 건넨다. 오프라인 공간이 사라진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는 많은 감각들이 제한된다. 현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는 주로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여 교육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그림책은 시각적, 청각적, 문자적 요소를 갖춘 예술교육 매체로 적합하다. 2020년에 직접 진행한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뉴 노멀 청소년에게 그림책으로 질문을 던지는 예술교육가의 이야기를 나눈다.



공윤지 (Yunji Gong)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메이커 문화와 그림책 기반 인문예술교육을 하고 있으며, 창작 그림책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림책상상 그림책 학교에서 글 없는 그림책을 공부했다. 2009년부터 국립극장, 서울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등에서 교육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아이 코브 유

이현정 (Hyunjung Lee) / 대한민국

지아정원 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생

감염병이 돌면 으레 누군가가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학살이 시작됐다. 외국인, 이민자가 땅에 묻혔고 특정 종교집단이 불태워졌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거를도 없이 감염병을 막는 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노력을 되풀이하고 있다. 감염병이 퍼지자 외국인과 이민자를 혐오했고, 특정 종교와 지역을 단죄했고, 성소수자에 낙인을 찍었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했고 결국 내 이웃과 가족과 나 자신을 의심했다. 감정의 폭력은 감염병보다 빠르게 전파됐고 감염병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미술 치유 프로그램 ‘아이 코브 유(I Cov You)’는 우리가 안전을 빌미로 타인에게 가했던 폭력의 감정을 되짚어본다. 안전이 최우선인 사회는 보호돼야 할 환자를 격리돼야 할 확진자로 취급한다. 확진자를 향한 혐오, 배제, 편견, 차별, 단죄, 낙인의 감정은 잘못에 대한 정당한 죄값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무작위성은 모두가 잠재적 확진자임을 확인시킨다. 그래서 ‘아이 코브 유(I Cov You)’는 타인의 향한 폭력의 감정이 결국 나를 향할 것이라는 잠재적 불안, 공포와 마주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아이 코브 유(I Cov You)’를 통해 나와 너 사이에 자리한 코로나바이러스(CoV)의 감정을 추적했다. 4회에 걸친 8명의 예술 작업은 ‘그, 너, 나, 우리’의 관계망에 퍼진 폭력과 연민과 불안과 회복의 감정을 표현했다. 마르틴 니펠러의 시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에 침묵한 대가가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오는지를 보여준다. 타인의 고통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수적 피해가 아닌 내게 닥칠 하나의 징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평적 신뢰회복, 상호존중과 연대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예술적 실천이다.



이현정 (Hyunjung Lee) / 대한민국

Art & Culture Community 지아정원 대표이다. 예술교육, 예술치유 기획자이자 티칭 아티스트, 미술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적 환경 개선을 위한 예술의 교육적 치유적 접근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융합미술치료학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예술과 삶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융합미술치료학 연구에 관심이 있다.

위기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교육 장르 소개

배성종 (Sungjong Bae) / 대한민국

예술 강사

2020 서울시 교육청 <교복입은 예술가> 사업에서 청소년들과 실험적인 비대면 연극 수업을 시도했다. 수업 모형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연극 수업의 핵심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주제로 고안되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극작, 배우, 미술, 미디어, 음악, 편집 등으로 세분화하여 역할을 주고, 새로운 형식의 공동 창작물을 탄생시킨 수업의 전 과정을 소개한다. 연극, 영화도 아닌 새로운 장르의 예술 수업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다.



배성종 (Sungjong Bae) / 대한민국

성인된 후 연극을 전공하게 되면서 긴 시간을 상상 속에서 살았다. 현실과 마주하면서 다채로웠던 자아는 작아지고 무채색처럼 단순한 삶도 경험한다. 지금은 학교에서 과거의 알록달록했던 자신을 꺼내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상상이라는 색을 소개하고 함께 그려보자 권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한 예술이라는 친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

과도기를 이어준다: 예술교육이 성인으로 가기 전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는가

최영희 (Younghee Choi)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교육팀 팀장

1. 한국의 청소년

- 1) 치열한 경쟁
- 2) 지식 위주 - 정서적 지원 부족
 - > 높은 비율의 우울증
 - > 낮은 비율의 수면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교육 프로그램 “2020 고3, 수험생 문화예술교육 상상만개” “수능” 이후 기간

- 1) 목적
- 2) 목표
- 3) 우선순위
- 4) 프로그램: 온라인, 개별
- 5)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3. 결과 & 결론

- 1) 내면을 볼 수 있도록 함
- 2) 과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함

4. 시사점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에 예술교육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줌으로써 예술교육은 그들의 자존감을 되찾아주고, 어른으로 성장해 가도록 한다. 우리가 겪어왔던 과정들을 되돌아보자. 우리는 기쁨을 느꼈던 적도 있지만, 동시에 걱정과 피로감, 좌절감도 함께 경험했다. 예술교육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사고 구실을 하며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



최영희 (Younghee Choi) / 대한민국

다양한 사람들과 예술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폐회세션

18:25-19:25

국내 예술교육 연구자 및 유니트윈 회원들이 모여 학술대회 세션에 대해 리뷰하고, 예술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합니다.

모더레이터

장웅조 (Woong Jo Chang)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부교수

토론지

박신의 (Shin-Eui Park)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홍유진 (Yujin Hong)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김인설 (InSul Kim) / 대한민국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신혜선 (Hyesun Shin) / 대한민국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쉬프라 손만 (Shifra Schonmann) /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보와 령 (Bo-Wah Leung) / 홍콩
홍콩 교육 대학교 교수

에밀리 아치엔그 아쿠노 (Emily Achieng' Akuno) / 케냐
케냐 공과대학교 교수

랄프 벅 (Ralph Buck) /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학과장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모데레이터

장웅조 (WoongJo Chang) /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부교수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연구를 해오며, 최근에는 예술리더십과 앙트러프러너십에 관련한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중문학 학사와 공연예술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예술정책 및 경영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시애틀대학교의 예술리더십 학과 교수를 거쳐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예술경영연구, 문화경제, 문화정책논총 등의 편집위원이며 한국 문화예술경영학회의 학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론자

김인설 (InSul Kim) / 대한민국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로, 예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주제들을 연구한다. 문화정책과 거버넌스, 예술경영, 예술교육, 예술 치유, 문화기술, 문화 복지 등 예술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자본 및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가 주요 관심사이다.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문화예술교육분야 등 다수의 국내외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국제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왔다.



토론자

박신의 (Shin-Eui Park)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이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이다. 주요 연구 주제는 '예술의 사회적 영향', '예술치유', '예술기업가정신', '박물관 경영', '문화정책' 등이다.



토론자

신혜선 (Hyesun Shin) / 대한민국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

현재 위컬쳐 리서치&컨설팅의 대표이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사로 활동 중이다. 문화예술교육, 국제문화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을 중심으로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문화정책·예술경영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우리 삶 속의 예술과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 그리고 사회 간 관계에 어떠한 기여와 영향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있다.



토론자

홍유진 (Yujin Hong)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KACES)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및 조사분석, 정책 및 기관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문화사회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육기반본부장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연수,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며,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단TF 팀장을 겸하고 있다.



토론자

쉬프라 손만 (Shifra Schonmann) /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쉬프라 손만은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젊은세대를 위한 교육, 사회, 연극의 바-네티저(Bar-Netzer) 의장이다.

The 4th O-UNITWIN Symposium



토론자

보와 령 (Bo-Wah Leung) / 홍콩

홍콩 교육 대학교 교수

보와 령 교수는 현재 홍콩 교육 대학교(EdUHK)에서 문화창조예술학과 교수이자 광동오페라 방송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그는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광동 오페라 교육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한 공로로 2011년 국제음악위원회(International Music Council) 음악적 권리상(Musical Rights Award)을 수상했으며, 2012년 홍콩 교육 대학원(HKIEd)로부터 지식전수상(Knowledge Transfer Award)을 받았다. 령 교수는 현재 국제음악교육협회(ISME) 회장 당선자이자 아시아-태평양 음악교육연구회(APSMER)의 의장, 중국 동북사범대학, 광저우 대학교, 화남 사범대학의 음악학과 겸임교수이며, 아시아-태평양 예술교육저널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토론자

랄프 벅 (Ralph Buck) /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학과장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무용학부 학과장이다. 그의 연구와 교육은 무용교육 커리큘럼, 무용 교육학, 그리고 생활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랄프는 유네스코 무용 및 사회 포용(Dance and Social Inclusion)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현재 세계예술교육연합(WAAE)과 같은 몇몇 국제무용연구 및 서비스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랄프의 교육과 리더십은 오클랜드 대학교 특별 교육 시상식에서 2008년 오클랜드 대학교 우수 교수상, 2010년 리더십상, 2006년 기회균등 우수상, 2016년 창의적인 예술 및 산업 연구 우수상 등을 수상하면서 인정받았다. 랄프는 노스웨스트사범대학 객원 교수직과 베이징무용아카데미를 포함한 여러 국제 학술에 활동하고 있다. 그의 무용 교육 연구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중국, 호주, 콜롬비아,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 덴마크, 뉴질랜드, 피지에서 초청 기조연설과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다.



토론자

에밀리 아치앵 아쿠노 (Emily Achieng' Akuno) / 케냐

케냐 공과대학교 교수

케냐 출신의 에밀리 아치앵 아쿠노 교수는 음악 연주자이자 교육자로 케냐, 미국, 영국에서 교육받았다. 그녀는 케냐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음악 교육을 통해 문화적 관련성에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그녀의 연구는 케냐의 국립연구기금이 후원하는 프로젝트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다. 에밀리는 국제음악위원회(IMC)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음악교육협회(ISME)의 회장을 맡고 있다. 그녀가 집필한 책 중 하나는 『아프리카의 음악교육: 개념, 연습, 과정(2019)』이며, 이는 아프리카 학자들이 집필하고 루트리지(Routledge) 출판사가 출판한 아프리카의 음악교육에 관한 편집본이다.

The 4th UNESCO-UNITWIN Symposium

5/28(금)
- 6/5(토)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항목	주제	개최 일시	송출방법
한국예술교육학회	퍼포먼스로서의 비대면 예술교육	5. 28.(금) 13:30~16:30	녹화 후 업로드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 29.(토) 9:30~13:00	녹화 후 업로드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참여와 소통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5. 29.(토) 9:30~13:15	녹화 후 업로드
한국조형교육학회	연결하는 미술교육: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비대면 미술수업 사례	5. 29.(토) 9:30~17:00	실시간 송출(유튜브) 녹화 후 업로드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	5. 29.(토) 10:00~18:00	실시간 송출 (시스코, 웨백스)
(사)한국사진교육학회, 현대사진영상학회	변혁과 위기의 시대를 유영하는 문화예술교육	5. 29.(토) 13:00~15:00	실시간 송출(유튜브) 녹화 후 업로드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위기의 시대, 기회의 음악교육공학	5. 29.(토) 14:00~17:30	실시간 송출 (유튜브)
대중음악콘텐츠학회	비대면 음악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	6. 2.(수) 14:00~17:00	실시간 송출 (유튜브, 줌)
한국무용학회	변혁의 시대, 무용인의 길을 묻다.	6. 5.(토) 10:00~13:30	실시간 송출 (줌)

한국예술교육학회

<http://artsedu.co.kr/>

본 세미나는 학회원과 관련 연구자들의 언택트 시대 관련 연구능력 배양과 예술교육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온라인 예술교육 패러다임 제시를 위해 개최하고자 한다. 더불어 인공지능, 퍼포먼스 그리고 VR이라는 예술교육 미래 화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비대면 융·복합 예술교육의 성숙과 확장을 위한 인력 향상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 공유 및 학습하는 기술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예술, 기술 융합교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는 바이다.

한국문화교육학회

<http://www.caes.or.kr/>

본 세미나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구성요소를 분야별로 논의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http://www.kosea-artedu.or.kr/>

본 온라인 세미나의 목적은 유례없는 지구촌의 팬데믹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내외 위기 대응 사례들을 공유하여 심층적인 현안을 논의하고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조형교육학회

www.saek.or.kr/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많은 위험과 변화를 겪고 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바뀐 시대적 변화는 사소하고 작은 인간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예술교육의 현장들은 빠르게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되었으나, 기술로 대체된 인간 삶의 연결은 더욱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본 학회는 공교육 현장과 사회문화교육 기관들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행했던 온라인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기술적 진보로 이루어진 지난 1년간 온라인 미술 수업의 장점과 문제점,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미술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개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2021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현장의 교사와 미술관, 박물관, 예비교사 교육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 종사하는 예술교육자들의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그들의 수업 방식에서 앞으로 미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변화를 모색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kasae.org/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피로감과 시스템의 혼돈이 장기화되면서 예술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의에 적합한 예술교육의 방향을 논의해 본다.

(사)한국사진교육학회

www.photoedu.co.kr/

현대사진영상학회

www.hdphoto.jams.or.kr/

‘예술교육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주제로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 사회, 예술과 교육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혐오와 차별의 문제, 팬데믹과 비대면교육의 문제, 예술과 미술관 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위기와 변혁에 직면하여 예술교육의 역할과 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미래 예술교육의 방향과 실천방안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방향과 지향점으로 가지고 실천될 수 있는지 논의가 확장될 수 있고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연구개발 참여로 미래 문화예술교육을 대비할 수 있다.

한국음악교육공학회

<http://kmet.kr/>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 교육부는 2020년 10월 5일, 4차 산업혁명 등 교육 환경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과정 등 위기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미래 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 즉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이에 본 학술대회에서도 이와 맥을 같이하여 이 시대 음악교육 분야와 음악교육공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자 한다.

대중음악콘텐츠학회

<http://pmcskorea.org/>

비대면 음악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세미나를 통해 현재 비대면 음악예술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온라인 예술교육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자료로 활용되고 교육종사자가 향상된 양질의 교육콘텐츠 창출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의견을 나누길 기대한다.

한국무용학회

<http://www.kaodance.or.kr/>

역동적 변화를 뜻하는 ‘변혁’, 그 시대 속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무용인들의 삶으로 들어가 소통의 자리 마련하고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무용 예술계의 현실탐색과 이슈를 포착하여 무용 예술의 발전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국제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박신의
(Shin-Eui Park)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홍유진
(Yujin Hong)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반본부 본부장



장웅조
(WoongJo Chang)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부교수

유니트윈-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명예회원

- 에카르트 리바우** (Eckart Liebau)
문화교육위원회 의장, 독일
- 래리 오패럴** (Larry O' Farrell)
퀸스 대학교 명예교수, 캐나다
- 쉬프라 손만** (Shifra Schonmann)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이스라엘
- 수전 라이트** (Shifra Schonmann)
멜버른 대학교 명예교수, 호주
- 에른스트 바그너** (Ernst Wagner)
뮌헨 미술원 선임연구원, 독일

정회원

- 벤저민 볼든** (Benjamin Bolden)
퀸스 대학교 부교수, 캐나다
- 베나민 외리센** (Benjamin Jörissen)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체어 의장, 독일
- 치후 럼** (Chee-Hoo Lum)
난양 공과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 네릴 지네렛** (Neryl Jeanneret)
멜버른 대학교 부교수, 호주
- 보와 령** (Bo-Wah Leung)
홍콩 교육 대학교 교수, 홍콩
- 글로리아 자파타** (Gloria P. Zapata)
후안 코르파스 대학재단 및 보고타 지역 대학교 유네스코 체어, 콜롬비아
- 교육기반본부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민국

준회원

- 메이 춘 린** (Mei-Chun Lin)
국립 타이난 대학교 교수, 타이완
- 에밀리 아치엥 아쿠노** (Emily Achieng' Akuno)
케냐 공과대학교 교수, 케냐
- 랄프 벅** (Ralph Buck)
오클랜드 대학교 학과장, 뉴질랜드

